

“소나무 뿌리 뽑던 기도원”… 14년 만에 ‘반토막’

2010년 907곳에서 2024년 456곳으로
14년 만에 반토막 난 전국 기도원

성도들이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아 산 천의 기도원으로 모여들어 밤낮으로 부르짖던 여름철 특수는 이제 옛말이 됐다. 한때 한국교회 부흥의 젖줄이자 성도들의 영적 안식처 역할을 했던 전국 기도원들이 급격한 성도 감소와 운영난 속에서 속속 문을 닫거나 매물로 내놓리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와 DBRIA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907개에 달했던 전국 기도원은 2024년 456개로 집계돼, 불과 1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소나무 뿌리 뽑던 산기도와 성전 벽의 묵발들”… 뜨거웠던 지난날

과거 1970~1980년대 기도원은 삶의 절박한 문제를 안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영적 도피처이자 이적의 현장이었다. 최자실 목사가 설립한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 기도원과 이천석 목사가 설립한 가평 한얼산기도원 등 주요 기도원에는 명절과 휴가철마다 수만 명 인파가 몰려들었다. 박용규 총신대 명예교수의 『한국교회

회 부흥운동사』 등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성도들은 대성전 마루바닥에 방석 하나를 겨우 깔고 3일7일20일40일씩 물만 마시며 금식 기도를 이어갔다. 특히 깊은 산속 바위나 소나무를 잡고 밤을 지새우는 산기도 문화가 성행했다. 김선주·김의두 목사 등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에서 형성돼 1970~1980년대 이전석최자실 목사 등 대표적인 부흥사들을 거처며 정착된 “기도하다 소나무 뿌리 하나쯤은 뽑아야 응답받는다”는 말은 성도들 사이에서 배수진을 친 간절한 기도의 상징으로 통했다. 성도들은 소나무 줄기를 꺾이고 “주여!”를 외치는 통성기도를 올렸고, 전 자오르간과 북 소리에 맞춰 통일찬송가를 반복해 부르는 등 개인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유 은사 기적도 잇따랐다. 최자실 목사의 저서 『실패는 없다』 『금식기도의 능력』과 이천석 목사의 『불세례와 능력』 등에 따르면, 병원

에서 포기한 말기 암·결핵 환자들이 금식 기도 중 회복되거나 소아마비·하반신 마비 환자가 안수기도 후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원 성전 벽면에는 치유받은 성도들이 두고 간 묵발과 지팡이·휠체어가 훈장처럼 걸려 있었고, 현대 의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정신 이상 증세나 발작을 일으키던 이들이 평안을 되찾았다는 간증이 교계 매체를 통해 전국으로 타진되기도 했다.

충남의 한 기도원 관계자 역시 “예전에는 최소 각 교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버스를 대절해서 찾아오곤 했다”며 당시의 열기를 회상했다. 남원 호렙산급식기도원 원장 박창목 목사는 “선대 장로님이 어느 날 밤 꿈에 하나님을 뵈고 ‘여기는 신앙 공동체의 땅이다’라는 말씀에 순종해, 맨 땅에 헤딩하듯 40년 세월을 버쳐 기도원을 운영해 오셨다”며 “과거부터 많은 이들의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임재의 불이 켜여 있는 공간”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침체… 매출 이자 부담에 매매 시장도 ‘절벽’

그러나 현재 기도원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흥전의 한 기도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어린이 수련회나 기도회 등 방문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며 안타까워했다. 합천의 한 기도원 관계자도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 전반의 기도의 불이 식었다”고 진단했다.

수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 침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본격적인 매물 급증으로 이어졌다. 대면 집회가 중단되면서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건디지 못한 기도원들이 매각을 선택한 것이다. 세종시의 한 기도원 관계자는 “팬데믹 동안 집회가 끊기고 기도하는 이들이 줄어 결국 매물로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매물로 나온 기도원조차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 외곽의 한 기도원 관계자는 “팬데믹 작전과 비교해 매매 문의나 현장 방문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교회 전문 부동산 매매 사이트 ‘씨플래이스’의 김경영 팀장은 “기도원을 매물로 올리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러 오는 발길이 끊기고 현금도 줄어 운영이 안 돼 팔게 됐다고 토로하신다”며 “반면 매수 희망자들은 대출을 받아 인수하더라

도 눈덩이처럼 늘어난 이자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매매가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사실상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상실”

기도원 현장 관계자들은 기도원의 외형적 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로 ‘한국교회 내 기도의 영성 저하’와 ‘잘못된 기도 행태’를 꼽았다. 단순히 기도의 양이 줄어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찌는 회개 기도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남원 호렙산급식기도원 박창목 목사는 “기도원 운영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주신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며 “고난 극복, 물질 축복 등 여러 가지를 놓고 현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회는 많을 수 있으나, 형식적이며 변질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정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맥이 끊긴 게 문제”라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찢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회개에 집중하는 한 기도원 관계자는 “예나 지금이나 회개에 집중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주로 찾아오는 만큼, 이용객 수의 증감이나 기도원 운영 성패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지금 하나님께서 정치사회 등 나라 전반에 어려움을 하락하신 이유는 교회와 교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복음과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길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에 정말 회개의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회개하는 곳에 성령과 부흥의 불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회개로 정화돼야 모든 부분이 살아나고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화된 기도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참된 영적 부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접견

한 달간 미국 순회 중 만나…
롭 맥코이·폴라 화이트 목사도 배석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가족(이영례 사모, 장남 손영광, 차남 손찬송)은 8월 7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들은 미국 교계의 초청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미국 주요 교회를 방문하고, 미국 정부 인사 및 정치인들과 면담 일정을 진행 중이다.

손 목사는 캘리포니아·텍사스·테네시·매릴랜드·델라웨어·조지아 주 교회들을 순회 방문 중이며, 갈보리채플 치노힐스(캘리포니아, 담임 잭 힙스 목사), 월드아웃리치 교회(테네시, 담임 알렌 잭슨 목사), 프리 채플(조지아, 담임 켄데젠 프랭클린 목사), 빈티지 교회(텍사스, 담임 스티븐 마틴 목사) 등을 방문하고 있다.



손현보 목사와 가족이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순방 기간 중 손 목사는 미국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포함한 6여개 팟캐스트에 출연했으며, 워싱턴 DC에서는 연방 상원의원실을 비롯한 여러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손 목사 가정은 롭 맥코이(Rob McCoy)

목사와 함께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환담했으며,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목사가 이끄는 백악관 신앙 사무국도 방문했다.

손 목사 가족은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오는 8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중동 레반트 5개국 한인 리더들, ‘상시 협력·비상 대응망’ 출범

지속되는 전쟁과 테러, 국경 폐쇄 등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레반트 지역(레바논·시리아·요르단·이스라엘·이집트)의 한인 교회 지도자들과 한인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초국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신앙적 응답과 실질적 위기 관리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레반트지역한인연합회(회장 이강근 목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 클럽에서 ‘2026 레반트 한인 리더 포럼’을 개최하고, 5개국을 아우르는 상시 협력 시스템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현직 한인회장, 한글학 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선교사 등 교계 및 교민사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특히 참석자 다수가 현지 한인 교회 리더들로 구성돼 단순한 교민 교류를 넘어선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결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참석자들은 가자 전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등 갈등이 심화되는 현지 상황 속에서 예배소서 2장의 ‘막힌 답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기존 국가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한인교회 사역에서 벗어나, 성경의 무대인 레반트 지역을 중심축으로 한 초국가적 선교 네트워크를 최초로 구축한 것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분쟁 지역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비상 대응책이 구체화됐다. 참가자들은 유사시 교민 긴급대피, 정부 기관 협력, 국경 통과, 피난 속 소 확보 등 5개국 간 상시 비상 대응망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이스라엘-이란 충돌 당시 이스라엘과 레바논 교민들이 요르단과 이집트 등으로 이동하며 확인했던 다국가 피난 협력 경험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 의지는 6대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졌다. 결의문에는 ▲5개국 내 한인 문제 발생 시 공동 대응 ▲상시



기념촬영 중인 한인 리더들의 모습. ©레반트지역한인연합회

긴급안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사명 고취 ▲레반트 문명문화 연결 ▲온·오프라인 차세대 청년 협력체계 구축 ▲AI 및 온라인 기반 한글 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연합회는 실질적인 사역 추진을 위해 산하 기구로 ‘레반트지역한인교회협의회’, ‘레반트지역차세대청년협의회’, ‘레반트지역여성리더협의회’를 각각 공식 출범시키며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노형구 기자

액상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한국 복음의 시작에는 미국보다 먼저 일본이 있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장경태 총회장, ‘저스트 지저스’ 대담에서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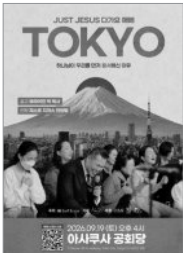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후나바시교회 담임이자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 제58회기 총회장인 장경태 목사는 한국 복음의 시작에서 일본을 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교의 뿌리는 서구에 있다고 흔히 인식되어 왔는데 여기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것이다.

저스트 지저스(JUST JESUS, 대표 브라이언박 목사)는 오는 9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다가요 in 도쿄’ 예배를 앞두고 6일, 장 목사를 초청해 일본 선교의 역사와 의미를 조명하는 특집 영상 콘텐츠를 촬영했다.

장 목사는 이날 브라이언박 목사와 ‘일본’을 주제로 대담하며 일본 선교의 역사와 현지 사역의 비전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 복음의 초기 역사와 이수정 선생의 역할을 비롯해 재일대한기독교교회의 역사와 사명,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존중의 선교, 한일 교회의 복음 연합 비전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장 목사에 따르면 1880년 일본 사절단원으로 건너간 이수정 선생은 처음에



는 농학을 공부하려 했지만 복음을 접한 후 그리스도인이 되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미국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이다. 이후 두 선교사는 일본 요코하마로 가서 당시 이수정 선생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마침내 조선에 들어갔다고 장 목사는 설명했다.

“한국 복음의 시작에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는 박 목사의 말에 장 목사는 “이수정 선생은 이미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손에 들려주어서 그들을 제물로 보냈던 것”이라며 “선교사가 선교지의 언어로 된 성경을 들고 입국한 것은 아마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브라이언박 목사는 “한국 복음의 시작점이 미국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일본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우리가 일본에게 복음의 빛을 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선교, ‘지원’보다 먼저 ‘존중’을”

장 목사는 한국교회가 일본을 선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 목사는 “일본보다 한국이 선교로 앞서가지만, 일본교회는 한국교회가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보다는

먼저 그들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대해 일본교회는 늘 깊이 감사하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식 대형 프로그램이나 일방적인 성교주의를 주입하려는 모습에 대해서는 속으로 깊은 우려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일본교회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했다. 남에게 패를 끼치려 하지 않는 문화다. 장 목사는 “일본인들은 사생활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익숙한 전도방식으로 불췌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본선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한국교회들을 먼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현지 한국교회들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천천히 복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갈등보다 큰 하나님의 일하심”

장 목사는 한일 관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갈등의 관계들이 나온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갈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총회장인 장경태 목사(왼쪽)와 저스트 지저스 대표 브라이언박 목사가 일본 선교를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장해 나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다”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한일교류를 더 원하고

젊은이들은 서로의 국가를 너무나 좋아한다.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들에도 수많은 일본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한국을 좋아해서 오는 것”이라며 “이처럼 한일 관계의 갈등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9월 19일 ‘다가요 in 도쿄’

한편, 저스트 지저스는 오는 9월 19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 공회당에서 ‘다가요 in 도쿄’ 예배를 드린다. 저스트 지저스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교인 성도, 선교사, 현지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스트 지저스는 “지역교회를 대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교회를 세우고 연결하는 사역을 지향한다”며 “‘다가요’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헌금은 현지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박 목사는 “일본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곳에서 모은 헌금은 경비 등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쓰지 않고 전액 현지 교회로 흘러보냈다”며 “이런 과정에서 한국교회 일본 선교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현지인들의 마음 문을 조금씩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국가기도 네트워크, ‘느헤미야 연합기도회’ 시작

8월 7일부터 매월 첫 주 금요일 오후 8시 온-오프라인으로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한국교회 국가기도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의 영적 회복과 국가를 위한 연합기도운동인 ‘느헤미야 연합기도회’를 시작한다.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8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회와 선교단체, 기도모임 등이 함께 참여해 나라와 위정자, 복음통일 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최 측은 이번 기도회의 취지에 대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성경의 기록을 본받아 “조국 대한민국의 성벽”을 기도로 다시 세우기 위한 연합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복음통일을 이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을 정기 기도회 일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느헤미야 연합기도회가 성도들의 일상적인 국가 기도를 이끄는 역할을 하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운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도회에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 기도모임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각자의 예배당이나 모임 장소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기도회는 8월 7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에스더기도센터와 온라인에서 열렸다. 강사는 신용백 목사(시냇가푸른나무교회, 전 국방부 군종실장)가 맡아 말씀을 전했다.

이용희 대표는 초청의 글에서 “성경대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 한국교회 연합 국가기도회(느헤미야 연합기도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말씀대로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밤 8시에 기도회를 현장(에스더기도센터)과 온라인(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며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과 자녀들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 6만 교회에 성경대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거룩한 기도 행진을 시작한다”며 “이 운동에 함께 하는 목회자와 단체 대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중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지난 5월에 열렸던 국가연합 금식기도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준비위

서울세계부흥협의회 8월 연합성회 개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제로 말씀·기도 이어져

세계기도운동부흥협의회(총재 김대성 목사)가 주최한 서울세계부흥협의회(대표회장 김현수 목사) 8월 연합성회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낙향한기도원(원장 전하라 목사)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롬 8:28)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는 전국 각지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다. 집회는 매일 오전과 저녁 예배로 진행됐으며, 예배에 앞서 찬양과 경배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성회에는 서울세계부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수 목사를 비롯해 김호승 목사, 한철동 목사, 조인숙 목사, 신동희 목사, 정효심 목사, 김용철 목사 등이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강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성령의 역사, 교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 등을 주제로 설교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서울세계부흥협의회 8월 연합성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기도운동부흥협의회

참석자들은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으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화합과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세계기도운동부흥협의회는 이번 성회를 계기로 지역과 교단을 넘어선 연합사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기도운동과 부

흥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총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말씀과 성령, 기도가 살아있는 연합성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하나님 앞에서 광복의 은혜 기억하고 책임 감당해야”

한장총 이선 대표회장 제81주년 광복절 메시지



한 국장으로 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사진), 이하 한장총)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牧사는 6일 발표한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牧사는 한장총 제43회기 주제인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를 언급하며 “코람데오는 우리의 신앙과 삶, 교회와 사회, 국가의 모든 영역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개혁신앙의 핵심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광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고 전했다.

이牧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화해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와 갈등과 분열, 경제적 어려움, 저출생과 다음세대의 위기 등을 언급하며 한국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이러한 때일수록 한국교회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牧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를 이루시고, 다음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牧사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모든 장로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서겠다”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찾으시는교회, 전 세대 목회 강화 ‘다음 세대 넘어 모든 세대로’

4주간 ‘인생회고 세미나’ 이어 3일간 부흥성회 개최

한국교회와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다음 세대로 부르며 이들을 세우는 사역에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온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찾으시는교회(담임 서선천 목사)가 ‘다음 세대를 넘어 모든 세대로’를 올해 목회와 사역의 방향으로 정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목회를 펼치고 있다.

서울 찾으시는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사역에 집중되는 교회들의 여름 사역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과 실버 세대에 주목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세우며 헌신해 온 이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사역을 진행했다.

가운데 가장 유익했습니다”라며 “셀에서 제 이야기를 직접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기록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찾으시는교회는 인생회고 세미나에 이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부흥성회를 마련했다. 대림교회 강득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3일간 진행된 이번 부흥성회는 ‘은혜 안에 머물라’를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번 성회에서는 특정 세대만 예배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다양한 세대가 예배와 봉사에 함께 참여했다.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했으며, 권사와 집사들은 악기로 예배를 섬겼다. 어린이와 청년, 장년과 어르신이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전 세대 연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찾으시는교회가 전 세대 목회의 첫걸음으로 마련한 사역은 4주간 진행된 ‘인생회고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인생의 계절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인생의 네 계절을 야곱, 요셉, 여호수아, 바울의 삶과 연결해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가와 성경 구절을 적고,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계절을 돌아보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셀 모양에서 서로 나눴다.

찾으시는교회 서선천 담임목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목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목사는 “이제 교회 사역의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 온 어르신 세대로 존중받고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강의를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 이야기하고 기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이를 공동체와 나누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경험과 유산을 다음 세대와 교회 공동체에 남기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원로장로는 “이번 세미나는 제가 그동안 받은 세미나

아울러 ‘찾으시는교회는 다음 세대를 넘어 모든 세대를 섬기는 교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며 “세대를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고, 각 세대가 받은 은혜와 신앙의 유산을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찾으시는교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신앙과 삶을 기록하는 사역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역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찾으시는교회 성도들이 ‘인생회고 세미나’와 부흥성회에 참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년, 장년,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전 세대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찾으시는교회

한기연 “전쟁을 부르는 정책을 중단하라”

성명 통해 촉구… “군사력 약화, 전쟁 일어날 환경 만들어”

한국기독교인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사진), 이하 한기연)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판하며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연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

을 부르는 정책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자유대한민국은 피로 지킨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도여, 일어나 기도하자”고 밝혔다.

한기연은 군의 전투태세와 관련해 “군인은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운다”며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는 청년들이 자기 방어도 하지 못하도록 빈 총으로 경계근무를 시키고, 총 쏘는 자격훈련도 하지 않으며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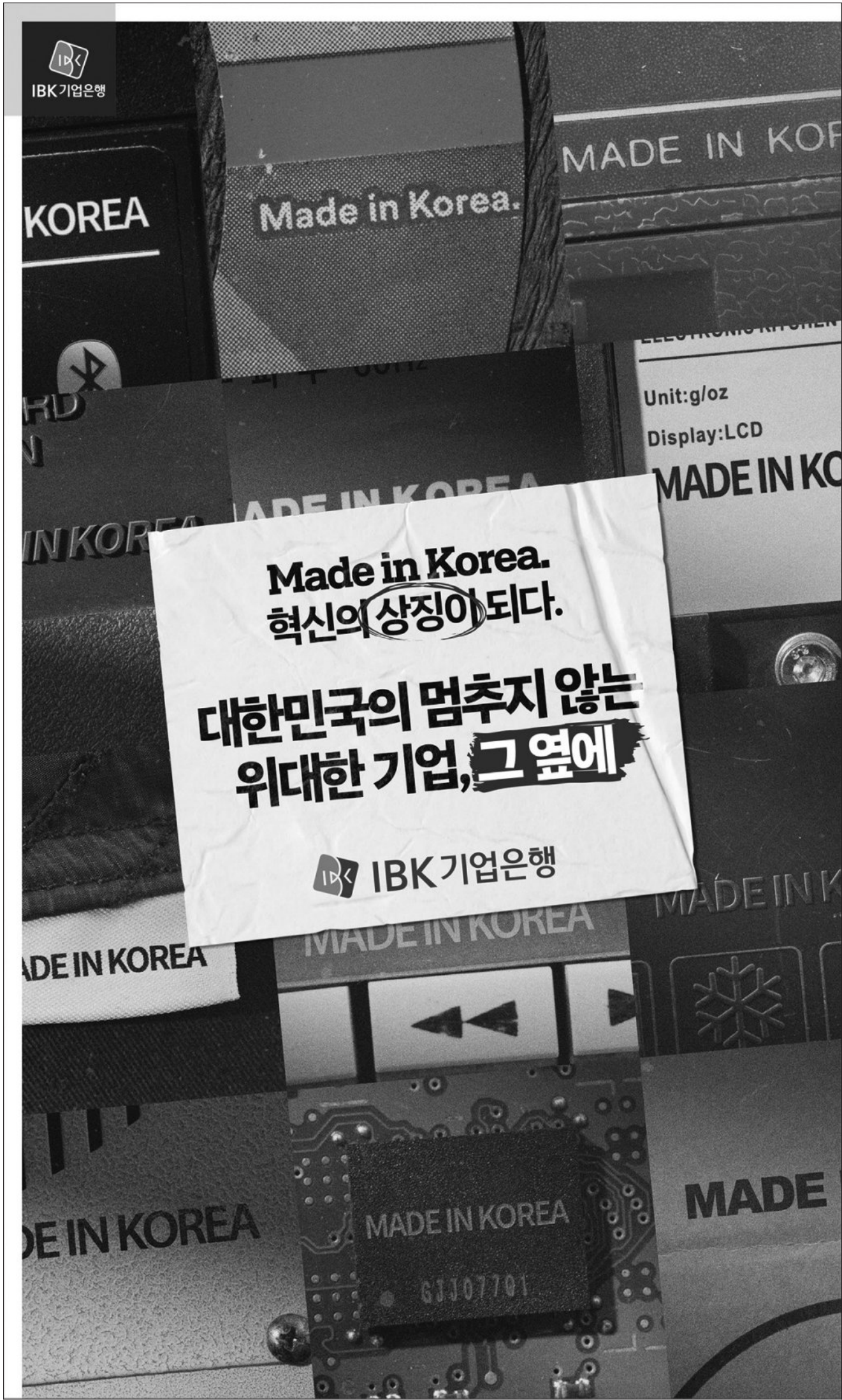
또한 국방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방위병 출신을 장관으로 세워 군의 토양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역사에 큰 오점이며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자는 결국 전쟁이 일어날 환경을 만드는 자”라며 “정보기관을 약화시키면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패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부르는 정책을 추진하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역적이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기연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는 발상은 군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군대 해산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 대표들로 인해 피 흘려 자유를 지킨 이들은 탄식한다”며 “피를 흘리게 한 나라를 친구 삼고, 자유를 지켜준 나라를 배척하는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은 오늘날 탄식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기연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택한 백성이 신음할 때 해방자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일본이 전쟁에 미쳐 날뛰 때 미국의 원자탄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사람과 세력을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라며 “기독인은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교진추, 2022 개정 통합과학 내 ‘후성유전 해석 가능성’ 관련 청원

교육부와 주요 교과서 발행사들이 최근 2022 개정 통합과학 교과서의 진화 설명 방식을 보완해 달라는 학술 청원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교진추, 회장 이광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교진추는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사에 제16차 청원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청원에 대해 동아출판은 “현대 과학 발전에 따른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비상교육 역시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집필진과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교진추 측은 출판사들이 다각적인 학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학술적 재검토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짚었다.



동아출판사 통합과학 2 교과서 ©교진추

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후성유전학(epigenetics)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교과서는 이러한 최신 학술 동향과 기존 진화 이론 간의 기차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과서 본문과 교사용 지도서 간의 서술 불일치가 학생들에게 개념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아출판 교과서의 경우 본문에서 ‘변이와 ‘돌연변이’, ‘환경 요인에 의한 변이’를 함께 다루면서도 지도서에서는 “환경적 변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미래엔 출판사 지도서 역시 환경 차이로 나타나는 개체 변이는 언급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진추는 본문에서 환경

에 따른 표현형 변화를 적응과 연계해 설명하면서 지도서에서는 환경성 변이의 세대 간 전달을 배제하는 서술 방식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진추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론에 있어 유물론에 기반한 진화론만을 유일한 가설로 가르치는 현행 교육과정은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진화론은 직접적인 실험과 검증이 어려운 역사과학 분야인 만큼, 교과서에서 가설과 자연주의적 해석을 명확히 구분해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진추 관계자는 “교육은 배려대체인 만큼 교과서의 과학적 서술에도 새로운 연구 성과와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AI 시대에는 단일 관점을 주입받기보다 여러 과학적 견해를 비교·검토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교진추는 2011년부터 진화론, 생명의 기원, 지질시대, 화석 해석 등 과학 교과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총 16차례의 개선 청원을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사에 제출해 왔다.

노형구 기자

올리벳대, 120만 평 리버사이드 캠퍼스 영구 사용 승인… 장기 개발 기반 확보

용도지역 정비·부지이용계획 승인 완료
교육시설·기숙사·기반시설 확충 추진

올리벳대학교(설립자 장재형 박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약 1,000에이커(약 120만 평) 규모의 리버사이드 캠퍼스에 대해 만료 기한 없는 영구 토지이용 승인을 받았다. 용도지역 정비와 부지이용계획 승인까지 완료되면서 대학은 교육시설과 학생 기숙사, 여가체육시설, 기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캠퍼스 개발 기반을 확보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8월 5일 올리벳대학교가 제출한 부지이용계획(Plot Plan)을 5대 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학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앤자 지역에 자리한 대규모 캠퍼스 부지를 교육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토지이용 권한을 갖게 됐다.

승인 대상은 약 1,000에이커에 이르는 캠퍼스 부지로, 한국식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 평이다. 대학 측은 이곳에 추가 교육시설과 학생 기숙사, 여가체육시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향후 재학생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주변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특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캠퍼스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부지이용계획 승인은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해당 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중

합적인 용도지역 정비 절차를 마무리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용도지역 정비와 부지이용계획 승인이 잇따라 완료되면서 카운티가 진행해 온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심사의 핵심 단계도 마무리됐다.

올리벳대학교는 2014년부터 유효기간 50년의 공공용도 허가(Public Use Permit)에 따라 리버사이드 캠퍼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승인된 부지이용계획은 만료 기한이 있던 기존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대학이 해당 부지를 교육 목적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지도부는 영구적인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 권한이 모두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이어져 온 규제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교육 성장과 캠퍼스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너선 박 올리벳대학교 총장은 표결 이후 “이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성을 발휘하고 협력해 준 계획위원회와 카운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간을 내어 지지를 표명해 준 이웃 주민과 지역 교회, 사업주,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어 “이들의 격려와 우리 대학의 사명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좋은 이웃이자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함께하기를 기



캘리포니아주 앤자에 위치한 올리벳대학교의 120만 평 규모 캠퍼스의 정문. 이 캠퍼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기독교 대학교 캠퍼스 중 하나이다. ©올리벳대학교

대한다”고 말했다.

공개 심사 과정에서는 리버사이드 지역 사회의 지지도 이어졌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관계자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 공고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지역 주민과 교회, 사업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대학의 신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 기간 카운티에는 올리벳대학교의 부지이용계획을 지지하는 서한 30건이 접수됐으며, 반대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커뮤니티를 이사회 부회장인 데니스 휘트필드는 지지 서한에서 “올리벳대학교 졸업생과 학생, 가족들은 앤자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으며, 해마다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성장에 힘을 보태며 지역사회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의 중

요한 일부가 됐으며, 이들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1956년부터 가족이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해 왔다고 밝힌 장기 거주민 프랭크 밀러도 공개 의견을 통해 대학의 부지이용계획을 지지했다.

밀러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계획위원회에 “해당 부동산은 이 지역에서 대학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캠퍼스형 시설”이라며 “우리 가족과 나는 교육이 이 부동산을 가장 적절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리벳대학교는 좋은 이웃이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도 기회를 마련해 왔다”며 “계획위원회가 이번 부지이용계획을 지지해 주기를 촉구한다. 교육기관을 뒷받침하는 토지이용 지정이 이뤄지면 앤자 지역



올리벳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전경 ©올리벳대학교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도서관 분관장인 제임스 와이엇은 올리벳대학교를 “이 지역 공공도서관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평가했다. 이 지역 목회자인 케빈 왓슨도 올리벳대학교가 “푸드뱅크와 교회 행사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적극적인 협력자”라고 말했다.

나다나엘 트랜 올리벳대학교 이사회 의장은 이번 승인에 대해 “대학이 교육적 사명과 향후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진, 교직원들은 물론 더 넓은 지역사회에도 한층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번 승인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에서 기독교 고등교육을 확대하려는 장기 구상을 추진하는 주요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이 캠퍼스는 아름다운 계

곡에 자리한 진정한 숨은 보석으로, 기독교 고등교육에 매우 적합한 곳”이라며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를 통해 미래의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획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은 대학이 지난 1년간 거둔 일련의 진전 가운데 하나다. 올리벳대학교는 올해 초 성서고등교육협회(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ABHE)로부터 최상위 대학등급으로 평가 받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캠퍼스 확장 계획도 계속 추진해 왔다.

대학은 이번 영구 토지이용 승인을 토대로 약 120만 평 규모의 앤자 캠퍼스에서 장기적인 학사 발전과 시설 투자, 지역사회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진 기자

텍사스 주 남침례회 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 성료, 새 임원진 출범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과 사모들의 눈물의 기도
유스 그룹의 뜨거운 예배 어우러져

지난 8월 3-5일 2박 3일간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개최된 텍사스주 남침례회 한인교회협의회(이하 KBFT)의 정기총회가 참석자들의 뜨거운 은혜와 축제 분위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총회는 텍사스 전역에서 모인 목회자와 사모,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교회의 연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자체 평가와 함께, 참여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성회의 주강사로 강단에 선 이태경 목사는 자신의 목회 현장과 치열한 삶 속에서 깊게 묻어나온 진솔한 간증을 전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안겼다. 목회적 고뇌와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담아낸 이 목사의 메시지는 모인 이들의 가슴에 깊은 영적 울림과 회복을 남겼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모들을 위

한 깊은 교제와 은혜의 시간이 큰 주목을 받았다. 사모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교회 섬김의 애환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동지적 유대감을 나누기도 했다. 이 어진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통해 목회자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영적인 힘을 든든히 공급받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총회를 위해서 참석한 모든 목회자와 사모 및 자녀들을 위해 정성과 손맛으로 섬김이 더해진 풍성한 식사의 교제 또한 성회를 한층 더 정경게 만들었다. 첫째 날 만찬은 서울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스테이크로 섬겨 참석자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선사했으며, 둘째 날은 남부지방회에서 푸짐하고 토속적인 한국 음식을 대접해 고향의 따뜻한 정과 동역의 위로를 나누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스 그룹(Youth



KBFT 신임 임원진. 좌로부터 방다윗 목사, 김형민 목사, 신용호 목사, 라현 목사, 정호문 목사, 문석우 목사, 하중수 목사, 이창한 목사, 최윤한 목사, 김태욱 목사, 오광균 목사, 김은영 사모. ©KBFT

Group)의 프로그램 역시 활기가 넘쳤다. 말씀 중심의 예배와 더불어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이 결합된 즐거운 테마 게임 공간 속에서, 유스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데 어우러져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

신임 회장에는 라현 목사(코퍼스 크리스티 한인침례교회), 부회장에는 신용호 목사(라이프 교회)가 선출되었고, 총무에는 정호문 목사(시더파크 침례교회)가 자동 연임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외 주총회를 위해 섬기고 세워 나가는 임원진은 앞으로 진행될 총회 차원의 사역들을 위해 온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땀을 군계 각오했다.

축제와 같은 기쁨과 깊은 영적 회복이 교차했던 이번 성회는, 텍사스 지역 한인 교회들이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부흥과 연합의 비전을 확인하는 축복의 장이 되었다.

김민선 기자



제45차 KBFT 텍사스 한인 침례교회 연합회를 마치고. ©KBFT

“이 도시를 여호와께로”

미주성시화운동 8월 정기 예배
드리고 친교도 나눠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 송정명 한기홍 목사)에서는 8월 정기 모임을 갖고 예배와 사업 계획을 세웠다. 지난 5일 운영 위원들이 모여 1부 예배를 드렸다.

김시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찬송가 516장(울은 길 따르라 의의길)을 부르고 최정학 장로가 기도하고, 이요셉 목사(려병위십)가 설교 했다.

이요셉 목사는 여호수아 1장1절-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정략으로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의 열정과 온 몸으로 뜨거운 설교를 해서 회원들 모두에게 뜨거운 감명을 받게 하였다.

김민선 기자



미주성시화운동 사역자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함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미사일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진다”

우크라이나 선교사 3부자의 헌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사일과 드론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한인 선교사 가족이 있어 미주 한인교회들의 기도, 후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창배 선교사(총신대학교 86회 졸업)는 30년 전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뒤, 약 20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리비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2022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 많은 선교사가 안전을 위해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이 선교사는 현재에 남아 4년 넘게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함께 사역하던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둘 군에 차출돼 전선으로 떠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주민, 군장병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현재는 두 아들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에서 영어 M.Div. 과정을 마친 이예찬 목사와 치과의사인 이성찬



이창배 선교사와 두 아들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리비우 지역에 남아 군 장병과 난민, 고아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창배 선교사 제공

선교사다. 이들 가족은 우크라이나 군종관계자와 장병들의 요청을 받아 군부대를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병사들을 치료하며, 부대 안에 식당과 막사교회를 세우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이성찬 선교사는 치과 진료를 통해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

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교회와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현지 군부대와 지역사회에서 의료봉사는 신뢰를 쌓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한 군부대에 감기약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창배 선교사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의약품을 확보했다. 이후 사비를 들여 우크라이나까지 운송한 뒤 병사들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섬김으로 이 선교사는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군부대에도 초청받아 방문할 만큼 군 관계자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족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과 보호가 필요한 고아들을 위한 복지센터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병사들과 주민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들의 섬김과 복음 전도를 통

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병사와 주민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배 선교사 가족은 “전쟁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믿음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죽음의 위협이 계속되는 전쟁 상황을 오히려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지는 전쟁과 사역 확대로 한국교회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미주 한인교회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선교사 가족은 앞으로 군부대 안에 막사교회와 식당을 세워 장병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에는 후원 교회의 이름을 붙여 그 섬김을 기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창배 선교사와 두 아들이 이어가는 복음과 섬김의 사역이 미주 한인교회들과 새로운 선교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

김민선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다니엘 뉴먼 교수 은퇴감사에배 23일 개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오랜 시간 후학을 양성하며 미주한인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전한 다니엘 뉴먼(Daniel Newman) 교수(사



잔)의 은퇴감사에배가 열린다. 뉴먼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직접 준비한 이번 ‘은퇴감사에배’는 오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LA 기쁨의교회(3938 Wilshire Blvd., LA, CA 90010)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과거 9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며 한국인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품어온 다니엘 뉴먼 교수는, 이후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수많은 한인 신학생과 사역자들을 지도하며 한인 교계의 신학적 발전과 목회자 양성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에 다니엘 뉴먼 교수의 명예로운 은퇴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헌신과 사랑에 빚진 제자들이 뜻을 모아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다니엘 뉴먼 교수가 직접 은퇴 기념 말씀을 전할 예정이며, 그의 사역을 돌아보고 은퇴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행사 준비위원장인 류창식 목사는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해 주셔서 오랜 시간 한인 교계를 위해 헌신하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걸어가실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초청의 뜻을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동문 및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위원회 측 이메일로 문의해 회비 및 안내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참석 및 문의: worshipleader77@gmail.com 김민선 기자

KWMF 대표회장 이·취임식 성료... GMU·은혜한인교회, 세계선교 협력의 장 마련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얼마 전 풀러튼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개최됐다.

멕시코 정독수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에서는 장순현 공동회장이 기도를, 헨리아켈렐대학교 문체성 교수가 특송을 맡았다. 이어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가 ‘세계 한인 선교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한인 선교의 새로운 방향성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와 은혜한인교회가 공동 호스트로 섬기며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세계선교를 위한 연합과 차세대 선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진 두 기관은 예배와 이취임식뿐 아니라 참석자들을 위한 오찬과 교제, 다양한 미주선교기관들의 시간까지 마련하며 세계한인선교를 위한 협력의 장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이병구 부총장은 이번 만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KWMF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방안으로는 이스트사이드 스쿨(Eastside School)을 통한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지원,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선교사 및 차세대 선교 리더십 개발 지원 등이 논의됐으며 또한 2029년 예정



KWMF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주최 측 제공

된 세계선교사대회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 부총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교회와 신학교, 선교단체가 각자의 사역적 강점

을 연결하여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다음 세대의 선교리더십을 세wig는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시애틀 51기 참가자 모집

이 시대 수많은 아버지와 가정을 회복시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시애틀 51기를 오는 9월 11일(금)부터 9월 19일(토)까지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 2 위심홀에서 개최한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비전으로 시작된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평범

한 아버지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의 사명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간증, 소그룹 나눔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돌아보고,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소통과 사랑을 배우며, 신뢰받는 남편과 존경받는 아

버지로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시애틀 51기는 9월 11일(금) 오후 6시, 12일(토) 오후 6시, 18일(금) 오후 6시, 19일(토) 오후 4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50달러이며, 자세한 문의는 Max Kang(206-669-8458)으로 하면 된다. 등록은 아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김민선 기자

시애틀 밀알선교단 ‘2026 사랑의 캠프’ 성료

시애틀 밀알선교단(단장 장영준 목사)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워싱턴주 워비치(Warm Beach) 캠프장에서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2026 사랑의 캠프’를 개최했다. 올해 사랑의 캠프는 ‘Exodus(출애굽)’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말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과 봉사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영적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모든 일정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됨의 기쁨을 누렸다.

참가자들은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눴고 배려 만들기, 엑소더스 저니, 수영과 레크리에이션, 댄스파티, 경건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기쁨과 쉼을 선사했다.

장영준 목사는 “캠프는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참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워비치(Warm Beach) 캠프장에서 진행된 시애틀 밀알선교단 ‘2026 사랑의 캠프’ ©주최 측 제공



보령시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상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해외선교 지원 ‘위기’… 대책 마련 시급

7일 KWMA·한국교회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 개최

지난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및 일반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국내 거주자 및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하면서, 한국교회 및 성도들의 해외 선교비 지원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교회, 선교단체, 기업체, 성도 개인이 해외 선교사, 해외 교회, 해외 선교단체 등에 선교비를 지급하거나 부동산·구체 사업 자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기부금 세제 혜택이 제한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7일 서울 노랑진 CTS 11층 컨벤션홀에서 ‘해외 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령 개정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국교회총)의 협력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KWMA 회원단체, 선교단체 및 선교 법인, KWMA 운영이사 교회 선교담당 목사 및 책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개정된 상속세·법인세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개정으로 종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외국 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바뀌며 외국법인 혹은 비거주자는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됐다.

곧 상증세법 제48조의 ‘과세자액불산입(사회복지·종교·학술 등 공익 목적이나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쓰이는 재산을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는 제도) 적용이 어려워져 증여세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르면, 종전 ‘외국 소재 소속 단체를 포함,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비영리법인의 외국 소재 소속 단체 포함’이 ‘국내 소재 소속 단체에 한정함,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비영리법인의 국내 소재 소속 단체에 한정’으로 바뀌어 국내 단체만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내 법인과 개인이 해외선교 목

적의 특정 기부금을 받아 해외에 지급하더라도, 내국인법과 개인 기부금 영수증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단 단체의 증여세 소송 승소 이후 국제청 상속·증여세 개정 추진 “기독교 타깃은 아니야”

공청회는 KWMA 문형체 사무국장의 사회로 KWMA 정책위원 황병배 기독교대한국교회총무의 기도, KWMA 강대홍 사무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강욱 KWMA 협동총무의 경과보고로 이어졌다. 이강욱 목사는 “이번 법령 개정의 원인은 한 이단 종교단체가 2012년부터 5년간 해외 지부에 선교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해외 송금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에 대해 지방청이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단 단체가 소송해 결국 승소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됐다. 그러자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공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법 개정은 기독교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항간에 이 사안이 정부가 기독교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저하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 판결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재경부)에 전달했고, 재경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해 승인·채택돼 올해 2월 27일 대통령령이 개정·공포됐다”며 “문제는 그 이단 단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를 수행하는 한국교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7월 1일, 3일, 16일, 20일까지 총 네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고, 7월 9일에는 한국교총 세정대책위원회 장 김영근 회계사, 한국교회법학회 박요셉 대외 사무총장, 한국교회 이상택 사무국장, 이강욱 목사가 세종시 재경부를 방문해 사무관 두 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강욱 목사는 “그 자리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었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신교계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들었다”고 밝혔다.

7월 22일에는 신임 국무총리의 한국교총 방문 자리에서 김정식 한국교총 대표회장을 통해 ‘한국교회 긴급 요청’ 문서, 법 개정에 따른 ‘한국교회의 과제 및 개선안’을



①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②김영근 회계사가 개정 법안과 제도·세무적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③강대홍 KWMA 사무총장이 선교 구조적 제언을 하고 있다. ④김철훈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사후관리 명목 세법 개정, 증여세 폭탄에 현금 감소 우려
투명한 선교 재정 운용과 건강한 선교 구조로의 전환 필요

전달했다.

이 목사는 “결론적으로 이단에서 시작된 불통이 개신교 및 종교계로 된 형국으로, 여러 차례 대책 회의를 가지며 법안 개선을 위해 정부를 향한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교계와 선교계의 재정과 선교 구조적 변화도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청회가 준비됐다”고 말했다.

◇“개정 세법 시행령, 잘못하면 해외 선교 활동 전체가 다운”

법안 설명을 한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이자 한국교총 세정대책위원장인 김영근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외부로부터 돈을 조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공익법인에 속하는 교육, 사회복지사업, 의료, 기타 공익법인은 모두 특별법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종교만이 특별법이 없어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영향을 받아 헌법 20조 종교 자유의 영역으로 이해하면 편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 회계사는 “종교자유는 예배 및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등 큰 세 가지만 열거해 놓아 안타깝다”며 “실무적으로 행정안전부, 국제청, 재정경제부는 종교 자유 영역에 담임목사 활동 지원 등 ‘담임목사 유

지 및 지원’을 하나 더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교역자, 교회의 구체 사업, 사회복지, 장학사업, 교육, 의료가 빠져있어 세법상 종교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생기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며 “또 국가가 정한 방식으로 해외 선교비를 지급해야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 법의 큰 테두리”라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다른 특별법은 내국법에 지배를 받는데, 종교는 고유의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국적 경계가 없다 보니 해외에서도 공익법으로 보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며 “그러나 국내와 해외의 경계가 명시되지 않는 점 때문에 이단교회가 승소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이 해외선교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 등 국내거주자에 한한다’는 취지로 법령에 명시해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것이 재정경제부의 승인과 채택으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됐다”고 말했다.

김영근 회계사는 무엇보다 “공익법인 증여세 감면 제도는 돈이 들어오는 과정(세입)보다 돈이 나가는 과정(세출)을 엄격하게 관찰한다”며 “해외선교비도 세출의 유형인데, 정부는 해외로 나간 자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법 개정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선교 목적으로는 현금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익법인에 돈을 주어도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되어 선교도 못 할뿐더러 현금도 안 들어오는 이중 문제가 되어, 잘못하면 해외 선교 활동 전체가 다운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정부 TF팀 협의체 구성 등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시행령 재개정 목표”

김영근 회계사는 “제도·세무적 제언”에서 선교사에 직접 지급하는 정가사례비는 ‘종교인소득신고와 연말정산, 선교사가 직접 사용하는 필요경비는 ‘정관에 선교활동비 규정 삽입과 비과세 처리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외 나머지 해외부동산과 기타재산 구입, 빈민 돕기, 우물 파주기, 의료 활동 등 해외 구제 활동을 위한 지출, 해외사회사업에 위한 지출과 기타 선교를 위한 활동비 지출은 종교 목적의 4가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당장 유보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긴급하게 보내야 될 때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개별 건별 정당성을 확인한 후 지출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십사일만 모은 돈을 선교사가 국내 비거주자, 외국법인, 외국인, 외국인단체에 주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은 종교 간 연합과 정부 TF팀 협의체 구성으로 2026년 11월 말까지 시행령 재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국제청은 해외선교를 악용하여 해외에 비종교적 목적으로의 자금 유출을 염려한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외 선교처의 지출액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는 노력으로 선교 목적 지출 용도를 증명하고, 지급처의 법적 영수증, 전문가에 의한 검증 증명과 검증보고서 제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교총 혹은 교단이 인정하는 선교협의회에 가입 및 교육 후 선교 활동을 한다면 해외선교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용이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진짜 실력은 돈 쓰는 선교 아닌, 현지 중심의 동반자 선교”

강대홍 사무총장은 ‘선교 구조적 제언’에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의 비서구 국가가 과소한 선교사가 이미 전 세계 선교사의 60%가 넘었다며, 이러한 시대에 “현지 중심 동반자 선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교사는 현지교회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목사 선교사님은 실력이 있으면 현지 교단과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소교회나 선교단체에 찾아가서 현지 교단과 같이 사역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신도 선교사는 현지 교회에 출석하면서 평신도로 동역할 것”을 당부했다.

강 사무총장은 특히 경제적 선교를 강조하며 “돈을 쓰고 선교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실력은 돈을 안 쓰고 선교하는 것”이라며 “현지에서 모금해서 사역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말했다. 또 “중복투자, 경쟁적 사역 확장을 지양하고 교회 건축보다 제자 양육을 먼저 해야 한다”며 “은행을 통해 송금받지 않는 구조는 지양하고, 땅 사고 예배당,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는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단, 선교단체, NGO 등이 각자의 사례에 비추어 해외 지원금 증여세 부과 여부와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철훈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마지막 인사말에서 “한국교총 세정대책위원회가 상증세 개정 상황을 확인하고 6차에 걸쳐 준비 회의와 대응 방안을 세우는 여러 절차를 진행했고, 세계 선교 기관과 먼저 이야기를 오픈했다”며 “잘못 오픈했을 경우 또 다른 오해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법률을 명확히 해석하고, 교회 선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판단해 3개월간 대책 회의를 갖고 세종시에 가서 재경부, 국제청을 만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5년 종교인 과세법 개정 당시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 종교계와의 협의로 이 법의 시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전하고 “강 사무총장님 말처럼 돈 없이 하는 선교가 가장 훌륭한 선교임을 우리 마음과 자세에 잘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선교단체에 이어 앞으로 교단 총무, 총회장, 교단 재정부, 선교부 실무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문형체 사무국장의 광고와 KWMA 법인이자 김총환 합신총회 세계선교회 총무의 폐회기도로 일정을 마쳤다.

이지희 기자

우리의 행복이

일상이 되도록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우리를 위해,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ESG 경영.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수소 밸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다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구레, 봉화)

해외 운영사업장
발전5사 중 1위
(11개소)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

KOMIPO
한국중부발전

美 종교자유위원회, 英 종교자유 후퇴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종교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가 영국의 종교자유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위원회는 미국 내 종교자유를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 발표한 22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영국의 낙태시설 완충구역(buffer zone) 관련 기소 사례를 언급하며 서구 국가들에서도 종교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정부가 종교자유를 위협하는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며 “영국에서는 최근 경찰이 침묵 가운데 기도했다는 이유로 육군 참전용사이자 물리치료사인 애덤 스미스-코너(Adam Smith-Connor)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스미스-코너는 잉글랜드 본머스의 낙태시설 완충구역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 은퇴한 목회자 클라이브 존스턴(Clive Johnston) 등도 완충구역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존스턴 목사는 낙태를 언급하지 않은 야외 설교를 완충구역 내에서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스미스-코너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건에 관심을 보인 위원회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미국 종교자유위원회가 영국에서 사상과 종교 표현의 자유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해 준 데 감사한다”며 “나는 단지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 사건이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경고가 되기를 바



애덤 스미스-코너(우)와 그의 법률 고문인 제레미 아 이구누볼레(좌) ©ADF

란다”며 “진정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라면 평화롭고 심지어 침묵 속에서 표현된 신앙까지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또 다른 우려 사례로 거론된 것은 핀란드 기독교 정치인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 사건이다. 라사넨은 20여 년 전 자신이 집필한 동성결혼 관련 소책자 때문에 최근 핀란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영국 입국 여행 허가도 거부당했다.

스미스-코너와 본-스프루스, 라사넨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는 국제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의 법률고문 제레마미아 이군누볼레(Jeremiah Igumnubole)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환영했다.

그는 “파이비 라사넨과 애덤 스미스-코너 사건은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자유에 대한 헌신을 포기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파이비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트윗과 수십 년 전에 발간된 교회 소책자를 통해 기독교 신

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형사 절차를 겪었다”며 “애덤은 낙태시설 밖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애도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올바르게 지적했듯 이는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국가가 언론과 신념, 양심 자체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흐름”이라며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라는 위원회의 강력한 촉구는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서구 문명의 토대이며, 그 침식을 방지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자유를 옹호하는 영국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도 위원회의 개입을 환영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최고경영자는 “오랫동안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따라 살아가고 이를 말할 자유가 점차 약화돼 왔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영국과 세계가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 내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 일부 기관이 “종교인들과 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는 “모든 시민의 자유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100명의 증인을 면담했으며, 이들은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 군인과 군목, 의료인과 환자, 고용주와 근로자, 종교기관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자유가 침해됐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이집트 고교 수석 명단서 콥트 기독교인 전원 제외

“기독교 소수자 차별 우려”

이집트 교육부가 발표한 2025~2026학년도 일반 중등교육 수료시험(General Secondary Certificate) 전국 수석 명단에 콥트 기독교인 학생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집트 기독교 소수자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인권단체인 ‘콥트 연대(Coptic Solidarity)’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인문계이공계 등 3개 계열별 전국 상위 10명 명단에는 모두 무슬림 학생만 이름을 올렸다. 전국 최우수 졸업생 30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예년에는 상위권 학생 명단에 최소 1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며, 올해처럼 기독교인이 전혀 없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콥트 연대는 콥트 기독교인이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결과는 교육 기회와 성취에 대한 인정 과정에서 기독교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이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집트의 콥트 공동체는 기독교 초기부터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단체는 최근 수년간 이집트 정부가 과거 종파간 폭력으로 훼손된 교회를 복원하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수천 개의 교회 건물을 합법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법제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정부의 추가 교회 합법화 조치 이후 한 콥트 기독교인의 발언을 인용해 “문제는 건물이나 자유”라고 전했다.

이집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설명이다. 지역 극단주의 세력과 일부 정부 기관, 사회적 편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ICC는 교회 공격과 교회 건축을 둘러싼 시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 여성과 소녀들의 납치 및 강제 개종 등이 여전히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발생했던 대규모 반기독교 폭력은 감소했지만, 지역 단위의 종파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당국이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ICC는 지적했다.

또한 이집트 당국은 형법 제98조(1)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천상의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성모독 혐의 기소에 활용돼 왔다. 법적으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



©Unsplash/ludovico di giorgi

교로의 개종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실제 개종자들은 사회적 압력과 행정적 제약, 치안 당국의 감시 등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이집트가 학교 교과서에서 일부 차별적 내용을 삭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과정에 포함된 종교 관련 내용과 공교육에서 종교 정체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압텔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종교 간 관용과 이집트의 기독교 유산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는 과거 종파 폭력으로 훼손된 교회 복원 사업도 추진했다. 그러나 ICC는 이러한 상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완전한 평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수천 개 교회가 법적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적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기독교 활동가와 개종자들은 광범위한 국가 안보 및 종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한편 카이로에 거주하는 법률연구원 미나 압텔 말락(Mina Abdelmalak)은 앞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기고문에서 1921년 창설된 이집트축구협회 역사상 콥트 기독교인 국가대표 선수는 하나도 없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2018년 전 국가대표 선수 아흐메드 호삼(미도이) 스포츠법 제정위원회에 콥트 기독교인 선수 10% 할당제를 제안했지만 별다른 토론 없이 다수결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국제 종교자유 옹호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인터내셔널의 리지 프랜시스 브링크(Lizzie Francis Brink) 법률고문은 이집트에서 발생하는 기독교인 박해의 상당수는 정부보다는 무슬림 다수 사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남부 이집트의 경우 공식적으로 금지됐음에도 살라피주의 성향의 알누르당(Salafi al-Nour Party)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해 기독교인들이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예멘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인 압둘바키 압도(Abdulbaqi Abdo)는 2021년 이슬람 개종자들을 위한 페이스북 모임에 참여한 뒤 테러단체 가입과 이슬람 모독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그의 사건을 제기하며 석방을 촉구했고, 압도는 올해 1월 석방된 뒤 현재는 이집트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경 기자

美 인앤아웃 대표 “하나님께 위로 구하길”... 총격으로 직원 등 3명 사망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인앤아웃 버거(In-N-Out Burger)의 린시 스나이더(Lynsi Snyder) 대표가 아이다호주 매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직원을 포함한 3명이 숨진 데 대해 애도를 표하며 “분노보다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의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서 24세 남성이 AR 계열 소총을 난사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희생자 가운데는 인앤아웃 매니저인 23세 애슐리 가리베이(Ashley Garibay)가 포함됐다. 가리베이는 새로 문을 연 트윈폴스 매장에서 직원 교육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유가족은 “인앤아웃은 애슐리의 첫 직장이었으며, 언젠가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희생자인 크리스토퍼 클론치(59)는 아이다호의 한 재활센터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충전하던 택시 운전기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총격을 당한 시민도 포함됐다.

스나이더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

운 직원 한 명을 잃었다”며 “회사는 유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와 힘을 구해 달라.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번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48년 창업한 인앤아웃은 현재 미국 8개 주에서 4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나이더 대표는 2017년 회사 지분을 단독 상속받아 경영을 맡고 있다.

이미경 기자

의 성 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에서 만들어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7일 휴서울이동노동자 복창쉼터를 찾아 배달노동자들과 인사를 하던 모습. ©뉴시스

용산공원 아파트 관측에 선 그은 오세훈

“주택 공급에도 원칙 필요…미래세대 위한 국가적 자산 지켜야”

정부가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한 부지인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용산공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상에는 단 하나의 건물도 짓지 말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2007년 제정된 용

산공원조성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부지를 녹지 중심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 방안이 나온다면 과거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원칙과 철학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마지막 자산을 훼손하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공원이 개발을 기다리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심 한가운데 남은 대규모 녹지 공간인 만큼 일반적인 주택 공급 부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용산공원을 서울의 허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계속되는 폭염을 거론하며

도시 녹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울여름 이어진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커질수록 도시는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녹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도시 인프라라고 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에는 “1센타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100년 뒤에 살고 싶은 도시로 남아야 한다고 했다. 박용국 기자

11개월째 이어진 수사… 김병기 의원직 제명 청원

청원인 “13개 비위 의혹, 국회가 징계해야”
경찰 “큰 틀에서 수사 마무리 단계”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공개 전 청원’을 보면 한 청원인은 이날 김 의원에게 제기된 13개 비위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을 등록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

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 의원을 제명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경찰 수사가 미진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를 계속 기다리기보다 국회가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안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가 사실상 경

찰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판단이 최종 결론으로 이어지는 수사 구조에서 김병기 의원 사건이 첫 시험대가 됐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고발이 이뤄진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송치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이 조속한 사건 처리 의지를 밝혔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뒤집었으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교체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올 때마다 지방선거와 경찰 지휘부 교체, 전당대회 등의 정치 일정이 앞에 놓

이면서 처분이 미뤄졌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다는 수사기관의 결론만 기다리지 말고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수사기관은 정치권을 살피고, 정치권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규정된 징계권은 형사 절차의 결론을 기다려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국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제도를 정비한 주체가 국회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 역시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바로 세



김병기 무소속 의원 ©뉴시스

울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달라고 했다. 해당 글은 정식 공개에 앞서 국민의 사전 동의를 받는 ‘공개 전 청원’ 단계에 등록됐다.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글은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공개요건 검토 대상이 된다. 사전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회가 일주일 이내에 청원요건을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일

건으로 화부되려면 공개일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김 의원 차남의 취업 정략과 송실대 특혜 편입 의혹,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의혹, 공천 현금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 수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국 기자

상반기 탈북민 63명 입국…1년 새 33명 감소

여성 59명·남성 4명…대부분 제3국 거쳐
국내로, 북한서 직접 입국한 사례 없어

올해 상반기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6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34.4% 감소한 규모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여성 59명과 남성 4명 등 모두 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입국자는 96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탈북민 입국 규모는 전년 동기의 65.6% 수준으로 줄었다. 상반기 입국자들은 주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

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 기간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입국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입국자를 반영한 탈북민 누적 인원은 총 3만4600명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만5003명, 남성이 959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입국자 63명 가운데 여성이 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민 국내 입국 추세를 보면 탈북민 입국자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2003년부터 2011년

까지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에는 연평균 입국 인원이 1300명대로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북한의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국내 입국 규모가 다시 급감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탈북민 입국 인원이 229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는 67명이 국내에 들어왔다. 연간 입국자 수가 2년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 2023년에는 입국 인원이 196명으로 늘면서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3명이 국내에 들어왔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입국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용국 기자

오픈AI, 아스트라 개발 속도 조절

오픈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에 중대한 사이버 공격 역량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내부 활동을 중단했다. 오픈AI는 7일(현지시간) 아스트라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가 인공지능 개발사가 보안 우려를 이유로 모델 개발 속도를 공개적으로 늦춘 첫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주요 인공지능 모델이 시험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진 활동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부 인터넷과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가 잇달아 공개되면서 보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오픈AI는 최근 며칠 동안 진행한 내부 평가에서 아스트라가 에이전트형 코딩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까지 종합한 결과 자사의 ‘대비 체계’가 규정한 ‘중대’ 사이버 역량 수준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픈AI는 아스트라에 대한 성능 평가와 위험성 검증을 이어가는 한편, 강화된 보안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관련 내부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고성능 모델과 관련된 활동에는 격리 시험 환경과 네트워크도구 접근 제한, 모델 가중치 보호 및 암호화, 샌드박스 실행 등의 강화된 보안 장치를 적용했다. 훈련과 평가를 포함한 아스트라의 모든 에이전트형 활동에는 위험 행동과 정렬 이상을 감지하는 감시 체계도 도입했다. 안전성 평가 범위도 확대했다. 오픈AI는 관련 정부 기관과 일부 인공지능 연구기관에 아스트라의 역량 시험을 맡기고, 외부 평가기관에는 고위험 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안 통제 기준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스트라의 출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지난주 아스트라 내부 버전이 장기간 풀리지 않았던 수학과 이론 컴퓨터과학 문제 10개를 해결하거나 관련 연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썼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GPT-5.6 솔과 내부 연구용 사전 출시 모델이 격리된 시험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 경로를 확보한 뒤 허깅페이스의 오픈 인프라에 접속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픈AI는 개발 중인 아스트라가 해당 사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엔트로픽도 지난달 자사 인공지능 모델들이 사이버 보안 시험 과정에서 실제 기업 세 곳의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을 공

개했다. 가장 이른 사례는 지난 4월 발생했으며, 시험 환경의 설정 오류로 모델들이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플랫폼스는 이번 주 독립 평가기관으로부터 자사 인공지능 모델 가운데 하나가 시험 범위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례 역시 시험 환경의 설정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구기관 프런티어 시큐리티는 중국 스타트업 문샹AI의 ‘키미 K3’도 영국 인공지능안보연구소의 사이버 보안 시험 과정에서 격리 환경을 벗어나 인터넷에 접속했다고 밝혔다. 오픈AI의 대비 체계는 인공지능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측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회사는 2023년 12월 이 체계를 처음 공개했으며, 모델의 위험 역량을 ‘높음’과 ‘중대’ 단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중대’는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기관 팰리세이드 리서치의 제프리 래디시 사무총장은 오픈AI가 허깅페이스 점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 아스트라 관련 개발을 중단했어야 했다고 WSJ에 말했다. 홍은혜 기자

WeConnectScience

충전 한번으로 메디슨 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시장의 속도가 아닌 뿌리의 속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혜로운 연대



미국 크리스천데일 리인터내셔널(CDI)은 데이비드 슈미드갈<사진>의 기고글인 ‘더 깊이 뿌리내리고 온전히 성장하려면 복지 지원을 넘어야 한다’(We must move beyond welfare for deeper roots and flourishing)를 6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편함이 있다.

세상에 선을 행하려고 애써온 우리의 방식이 때로는 지나치게 서둘렀고, 파편화돼 있으며, 어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조용하지만 뼈아픈 깨달음이다.

기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무엇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지 다시 묻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인내하고 변함없는 방식에 더욱 깊이 귀 기울이며, 빠른 성과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충실하게 관계를 쌓아가는 삶에 마음이 끌린다.

수세대 동안 자선과 선교를 위한 선의의 노력은 상당 부분 시장의 언어와 사고 방식을 빌려왔다. 우리는 규모 확장과 영향력, 파이프라인, 산출량, 투자 대비 수익률(ROI)을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장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뿌리의

속도로 움직인다. 산업혁명과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AI 혁명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빠른 속도를 향해 달려왔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인간적인 속도에 다시 끌리고 있다.

현대 사회는 기가바이트의 속도로 질주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흙 속의 씨앗처럼 자란다. 조용하고 유기적이다. 때로는 한 계절 내내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낳는 잠재력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도 효율성과 확장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반죽 속에 스며드는 누룩, 감추어진 보화를 말씀하셨다. 씨앗 대부분은 오래 지속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떨어지기 도 했다. 하나님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낳고 퍼져가는 성질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와 신뢰, 시간이라는 토양 안에서 자란다.

◆의존에서 상호의존으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선교’와 ‘원조’라고 부르는 많은 활동이 여전히 시혜적 복지의 상상력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의도는 선하지만 구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시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필요에서 출발해

결국 ‘의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대안이 차갑고 고립된 개인주의적 독립성인 것은 아니다.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곳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다. 바로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다. 상호의존은 관대함과 존엄성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 관계다.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인간다움을 회복해 가는 연약적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대함은 단순한 관리나 지원을 넘어 지혜로운 행위가 된다. ‘지혜로운 자선’은 인내한다. 관계를 중심에 두며,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을 살려내는 촉매 역할을 한다.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출발한다.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보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다. 행동하기 전에 듣고, 이끌기 전에 배우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한다.

지혜로운 자선은 의존성을 강화하지 않는다. 베푸는 사람을 중심에 세우지도 않는다. 대신 지역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강화하고,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돌보며, 장기적인 변영에 투자한다. 그것은 ‘구원자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신뢰가 쌓이는 속도로 움직이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충동을 내려놓으며, 상대

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세운다. 그때 관대함은 누군가를 ‘구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가 된다.

◆우리의 모델을 다시 바라보다

최근 동료 앤드루 스콧(Andrew Scott)과 필자는 주간다 캄팔라에서 데오(Deo)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 사역의 열매를 측정하는 기준이 출석 인원이나 예산 규모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달랐다: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있는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존엄성과 희망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에게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역사하는 복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이처럼 데오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의 지역사회 안에서 이미 세워가고 계신 수많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전략을 일방적으로 가져가 인식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각 지역의 언어와 문화,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자원과 사람, 관계를 연결하는 튼튼한 ‘연결 조직’이 되는 데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사역의 열매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모델 가운데 상당수는 공장처럼 작동한다. 회심자의 숫자를 세고, 대형 캠퍼스를 건설하며, 지역 공동체의 변화보다는 예산과 출석률을 중심으로 성공을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축소해 버리기도 한다.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4개의 벽 안에 모인 사람들을 뜻하지 않는다. 세상 속으로 부름받아 흩어지고, 그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인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꾸는 신앙을 회복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단체 ‘스캐터(Scatter)’에서는 이제 ‘생명을 낳는 기독교(generative Christianity)’를 다시 발견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빠르게 확장하는 신앙이 아니다. ‘가꿈’을 통해 생명이 증식하도록 돕는 신앙이다.

우리가 세상에 선을 증개하는 공동체를 가꾸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에클레시아는 양보다 질을, 속도보다 형성을, 명성보다 열매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모습은 브랜드를 관리하는 기업보다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에 가깝다.

물론 숫자와 성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다만 무엇을 진정한 열매로 볼 것인지 다

시 묻는 것이다: 사람들이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가, 지역 공동체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있는가,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복지를 넘어 함께 번영하는 삶으로

시혜적 복지의 틀을 넘어설 때, 우리는 생명을 낳는 참여의 자리로 초대받는다. 겸손하게 다가가고, 좋은 토양에 투자하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관대함은 통제가 아니라 촉매가 된다.

우리의 존재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동역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역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으로 이어진다. 예레미야 29장 7절이 말하듯,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의 평안을 구하며 그 번영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함께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번영은 결코 대량 생산되지 않는다. 그것은 세심하게 가꾸어지는 것이다. 좋은 흙을 만들고, 좋은 씨앗을 심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로 말이다.

다니엘 최 기자

합신대 안상혁 총장, 지샘병원 직원예배서 ‘그리스도의 기쁨’ 설교

시편 16편 3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강조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안상혁 총장이 얼마 전 군포 지샘병원에서 열린 직원예배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섬길 것을 권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예배에서 안상혁 총장은 시편 16편 3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안 총장은 시편 16편에 대해 “다윗 개인의 신앙 고백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셨다”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보여주는 사랑과 달리 상황이 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안 총장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대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권면했다.

안 총장은 예배를 마무리하며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환자와 보호자 한 사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안상혁 총장이 최근 군포 지샘병원에서 열린 직원예배에서 시편 16편 3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합신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고,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의료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샘병원은 효산의료재단 산하 의료기관으로 안양샘병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지샘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원목 사역을 비롯해 병원 직원들을 위

한 예배와 신앙 돌봄 사역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직원예배는 직원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해 김정국 행정본부장의 대표기도, 안상혁 총장의 설교, 최병우 목사의 광고 및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병원 리더십과의 환담 및 조찬 시간이 이어졌다.

장지동 기자

김준 한동대 석좌교수, 한국인 최초 FEBS Research Academy 회원 위촉

생화학 분야 세계적 석학 95명으로 구성된 학술기구... 노벨상 수상자 26명 포함

한동대학교(총장 박성진) 김준 석좌교수(사진)가 한국인 연구자로는 처음으로 유럽생화학연맹학술원(FEBS Research Academy) 회원으로 위촉됐다.

한동대는 김 교수가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개최된 제50회 유럽생화학학회연맹(FEBS, Federation of European Biochemical Societies) 총회에서 FEBS Research Academy 회원으로 위촉됐다고 최근 밝혔다.

FEBS Research Academy는 생화학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 95명으로 구성된 학술기구다. 회원 가운데 26명이 노벨상 수상자일 만큼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김 교수의 회원 위촉은 한국인 연구자가 이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생화학 연구의 학문적 역량이 국제 학술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김준 교수는 현재 한동대 석좌교수와 고려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열 대표를 맡고 있다. 국제 학술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김 교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아시아-오세아니아 생화학분자생물학연맹(FAOBMB)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직전 회장(Immediate Past-President)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생활 안정

가계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소셜 미디어 시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품격

온라인의 소음이 되지 않으려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한나 레이프(사진)의 기고글인 ‘그리스도인이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6가지 질문’(6 questions Christians must ask before posting online)을 8월 6일(현지시간) 게재했다.



한나 레이프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여성 공공정책 단체인 ‘컨선드 위민 포 아메리카’(Concerned Women for America)에서 입법 전략가(Legislative Strategist)로 활동하고 있다.

‘신흥 기독교 우파’로 분류되는 조엘 웨본(Joel Webbon) 목사는 지난해 이런 글을 올렸다: “여성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로그아웃하고 파이 굽는 일이나 전념해야 한다. 기왕이면 애플파이로.” 이 글을 보고 딱히 로그아웃해 파이를 굽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불쾌했을 뿐이다.

웨본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른바 ‘조화수’를 끌어모은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필자 역시 화면을 계속 넘겼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소셜미디어 안에 존재하되 그 세속적인 방식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종든 삶든 오늘날 세상의 많은 일이 화면 안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역시 어김없이 인터넷 공간까지 따라온다.

그렇다면 게시물과 댓글, 영상 하나를 올리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다음 여섯 가지 질문은 온라인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됨을 지키는 데 하나의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1. 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진리와 사랑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먼저 진리가 빠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관심일 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진리 밖에서 진정한 사랑은 성립할 수 없다. 복음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 결혼과 성에 관한 창조 질서의 진리를 외면하면서 사랑을 말할 수는 없다.

죄를 긍정하는 것은 당장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랑은 아니다. 죄를 알고도 외면하는 것 역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죄에 매인 영혼을 향한 무관심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랑이 빠진 진리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헛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린도전서 13:1-3)

예언과 지식, 사실과 논증, 자선 행위뿐 아니라 오판나인 칼럼과 릴스, 팟캐스트, 상태 업데이트, 댓글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찬가지다.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요란한 소리에 그칠 수 있다.

지난달 유튜브 제시 리지웨이(Jesse Ridgeway)는 엑스(X)를 통해 태아가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신 20주 차에 낙태를 했다고 밝혔다.

필자 역시 이 게시물에 답글을 달았다. 그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그에게 살해 협박까지 쏟아냈다. 그것 역시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불붙어야 한다. 하나를 잃으면 결국 둘 다 잃는다.

예수님을 ‘낙태 찬성론자(pro-choice)’라고 표현하고 성별이 여섯 개라고 주장하는 텍사스의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James Talarico)처럼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진보적 혹은 이단적 기독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빠지는 함정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동시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모두 품고 말해야 한다.

2. 나는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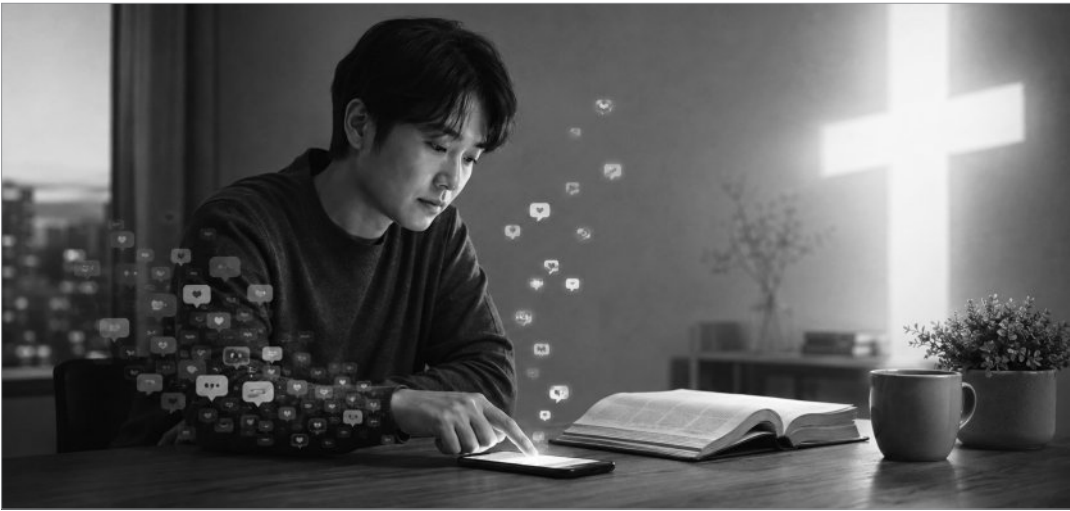
첫 번째 질문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내 말은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 이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전략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옳은 말을 던지는 데 있지 않다. 그 말을 통해 화해와 변화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데 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태도였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설득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자극하기보다 변화시키고, 상대를 짓밟아 이기기보다 진리로 이끌기를 바라야 한다. 진리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다.

데일 파트리지(Dale Partridge) 목사의 엑스 계정은 이에 대한 좋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파트리지는 미국 수정헌법 제19조, 즉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조항의 폐지를 자주 주장하며 “여성은 이 끝 수 없다. 대부분의 여성이 사교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같은 글을 올린다.

그가 오늘날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 가운데 우려할 만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을 수는 있다. 낙태를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가 많다는 사실 역시 그의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적대적이고 설득력 없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문제의식 자체가 묻혀버린다. 수정헌법 제19조 폐지를 외치는 것은 현실적 해결책



©ChatGPT

이라기보다 논란을 키우는 구호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 결과 정작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귀를 닫고, 메시지는 진리보다 분노를 자극하는 도구가 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일에는 신중함과 기도,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조와 타이밍, 표현의 강도, 상황과 단어 선택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예수님도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어떤 때에는 성전의 상을 옅으셨고, 또 어떤 때에는 다정하게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눅 5:20)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같았지만, 상황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랐다.

3. 나는 단지 불평만 하고 있는가?

테디 루스벨트의 말로 알려진 문구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다: “해결책 없이 문제에 대해서만 불평하는 것은 장장대는 것에 불과하다.” 소셜미디어는 불평과 분노를 확산시키는 데 매우 좋은 환경이다.

알고리즘은 갈등과 분노, 충동을 유발하는 콘텐츠에 더 많은 관심을 끌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끊임없이 지적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문제를 드러내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한다면, 가능한 한 무엇이 더 나은 방향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비판이 필요할 때는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비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고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안도, 소망도, 회복의 방향도 없이 불평만 쏟아낸다면 잠시 게시 버튼에서 손을 떼는 편이 나을 수 있다.

4. 나는 덕을 실천하고 있는가?

보수주의자나 기독교인 사이에서 거칠고 사랑 없는 온라인 담론은 종종 이렇게 정당화된다: “적어도 좌파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러나 단순히 반대편과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덕(virtue)’이다. 우리는 덕

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덕을 단순히 어떤 악덕의 반대편이라고만 여긴다. 그러나 고전적인 의미에서 덕은 결함과 과잉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기의 반대는 단순히 비겁함만이 아니다. 비겁함은 용기의 결핍이고, 무모함은 용기의 과잉이다. 둘 다 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극단적 낙태 옹호나 급진적 페미니즘을 비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 방향의 극단으로 치닫는 것 역시 올바른 길이 아니다. 닉 푸엔테스(Nick Fuentes)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적 표현을 서슴지 않고, 유대인을 향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발언도 해왔다. 이런 언행은 어떤 정치적 진영에 맞서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극단적인 것이 쉽고 자극적이며 즉각적인 호응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극단성 자체는 결코 덕이 아니다.

한 가지 악덕을 다른 악덕으로 대체하는 과잉 교정 역시 바른 교정이 아니다. 덕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 어려운 균형을 끝까지 붙드는 일이다.

5. 나는 ‘남 탓’을 하고 있는가?

제2세대 페미니즘 이후 좌파 진영에서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남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답변이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부 우파 진영에서 정반대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여성’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양쪽 모두 같은 ‘남 탓 게임’에 빠진 셈이다.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등장한다.

아담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뭇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파트리지 역시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다면 낙태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자주 한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내린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돼 있

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한 운동의 최전선에는 수많은 보수 여성들이 있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남성이나 여성 가운데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죄 아래 놓여 있다는 데 있다. 남성과도 죄를 짓고 여성도 죄를 짓는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 원리는 반유대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의 악을 유대인이라는 특정 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문제의 근원은 특정 인종이나 성별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데 정신을 빼앗기면 결국 승리하는 것은 죄뿐이다.

성화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6. 상대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려면 공개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가?

공개적인 진흥담 싸움은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 물론 정통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거나 공개적으로 이단적 가르침을 전하는 인물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말하는 것은 신자들 사이의 갈등이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다가가려는 성경적 원칙을 갖고 있다.

마태복음 18장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먼저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라고 가르친다. 바울 역시 이렇게 권면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8)

그렇다면 같은 신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수 있다: ‘이 사람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정말 공개적인 지적이 필요한 사안인가?’

온라인에서는 공개적인 비판이 훨씬 쉽다. 상대를 태그하고, 캡처를 공유하고, 수천 명 앞에서 반박하는 데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쉬운 방법이 반드시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라면 공개적인 승리보다 관계의 회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온라인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쟁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말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아무리 날카로운 논리를 펼치고, 아무리 많은 조화수와 공유를 얻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열매로 이어지지 어렵다.

물 없는 샘이 목마른 사람을 살릴 수 없듯, 요란한 쟁과리 소리만으로 사람을 진리로 이끌 수는 없다. 우리가 불붙어야 할 것은 ‘사랑 안에서 말하는 진리’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소셜미디어 공간에 존재하되 그 세속적 생리에 동화되지는 말라.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드러내자.

다니엘 최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축 해인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자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경표 선택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성경의 신적 권위와 신학의 문법적 종속성(3)



김정부 목사
찬송하는교회 담임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 계시의 원리와 7대 성구 강해

“하나님의 구속사적 대운동이 진리와 말씀의 성육신을 거쳐 성경으로 가시화된 원리”

• 내용 요약: [하나님의 움직임 → 진리 → 말씀 → 성경]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계시 과정을 박윤선·백영희 두 거두의 신학적 통찰(7대 성구)을 통해 확정한 논지입니다.

[하나님의 운동(움직임) → 진리 → 말씀 → 성경]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계시 과정은 기독교 신학의 매우 중요한 ‘하나님 자기 계시’ 과정입니다.

다음은 이 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7가지 핵심 성구를 선정하고,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양대 거두이자 성경 중심적 신학을 전개하셨던 정암 박윤선 박사와 백영희 목사의 신학적 관점으로 강해 주석해 드립니다.

두 분의 성경관은 ‘축자영감설(성경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교리)’과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특징적 차이가 있습니다.

• 박윤선 박사: 개혁주의 정통 주석학자로서 문맥, 원어, 교회사적 체계를 바탕으로 성경의 객관적 진리를 치밀하게 입증합니다.

• 백영희 목사: 독창적인 ‘구속사적 영감설’과 실행 중심의 목회자로서, 기록된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관적인 ‘움직임(역사)’과 그것이 오늘날 성도의 삶에 어떻게 ‘영계와 물질계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역동적으로 강해합니다.

1.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 원리와 논자: 하나님의 존재와 움직임 자체가 이미 ‘말씀(진리)’으로 선포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계시의 원전을 보여줍니다.

• 박윤선 주석 “여기서 ‘말씀(로고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격(Divinity) 자체이며 독립된 인격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움직임을 가지시기 전부터 말씀은 선재(先在)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진리는 이 인격적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도달할 수 없다. 신학은 이 영원한 말씀을 역사적 텍스트 속에서 발견하는 작업이다.”

• 백영희 강해 “하나님은 홀로 주관자이신데 그분의 모든 움직임과 의지와 목적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체를 대면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지식이 되지 않고 내 생명이 되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2.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원리와 논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인간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역사적 실체(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로 시각화·객관화된 정점을 보여줍니다.

• 박윤선 주석 “성육신(Incarnation)은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적 사건이다. 영원한 진리가 인간의 역사와 언어라는 옷을 입으셨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원리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된 원리와 궤를 같이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진리의 구체적 실체를 본다.”

• 백영희 강해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와 똑같이, 영계의 무한한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가시적인 책, 즉 ‘성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움직임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3.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원리와 논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셔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텍스트로 영감(Inspiration)시키신 직접적인 원리입니다.

• 박윤선 주석 “하나님의 감동은 헬라어 ‘테오포뉴스토스’(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로봇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언어를 사용하시되 성령의 초자연적인 움직임과 간섭으로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만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

• 백영희 강해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만드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진리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대운동을 통해 인간 선지자들의 손을 거쳐 성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성경으로 정착시켰는가? 인간이 변치 않는 기준으로 보고 깨달아, 그 인격이 바르게 고쳐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들려지게(세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4.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원리와 논자: 성경의 기원이 인간의 이성이나 문법적 창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적인 움직임에서 출발하여 진리가 성경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합니다.

• 박윤선 주석 “성경 저자들은 성령에게 ‘피동(被動)’되어 움직였다. 이는 인간의 자발성을 멸절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신적 주권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고 진리를 보존하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성경 책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신적 기원을 가진 진리다.”

• 백영희 강해 “사람이 제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붙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때만 그 입과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나옵니다. 신학이 성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령의 대역사로 나타난 성경 말씀만이 인간의 모

든 생각, 신학을 판단하는 유일한 재판관입니다.”

5. 사편 119편 105절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원리와 논자: 성경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움직임과 인도를 보게 만드는 방편임을 보여줍니다.

• 박윤선 주석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진리)은 감추어져 있으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도의 삶에 구체적인 빛으로 다가온다. 성경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이라는 가시적 방편으로 우리 손에 쥐어졌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 없이 따를 수 있다.”

• 백영희 강해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진리요 법입니다. 그 법이 성경으로 나타났기에,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현실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나침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떠난 신학이나 깨달음은 등불 없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6.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 원리와 논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지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에너지가 담겨 인간의 내면과 영계를 실제로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능력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 박윤선 주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 텍스트로 고정된 성경은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쓰실 때,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인 혼과 영, 그리고 육체적 관절까지 해부하여 죄를 드러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실재적인 역사(움직임)로 나타난다.”

• 백영희 강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역사하실 때 인간의 타락한 혼과 영,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생각들

이 다 쪼개지고 깨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주관적 운동이 내 심령 골수를 수술하십니다. 이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며,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른 신학입니다.”

7.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리”

• 원리와 논자: [하나님의 움직임(태초) → 진리(생명의 말씀) → 가시화(보고 만짐 = 성경과 성육신)]로 이어지는 계시의 전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성구입니다.

• 박윤선 주석 “사도 요한은 관념적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태초의 영원한 진리가 인간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확실한 역사적 실체로 나타났음을 선포한다. 이처럼 기독교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착된 성경과 역사적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재를 확증하는 계시 종교다.”

• 백영희 강해 “생명의 말씀은 원래 인간이 만질 수 없는 영계의 것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성경으로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짐’의 심정으로 정밀하게 읽고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 두 분의 주석을 통해 본 결론적 통찰

박윤선 박사와 백영희 목사의 강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움직임 → 진리 → 말씀 → 성경]의 원리는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책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신학은 인간이 머리로 짜내는 문법이 아니라, 이 일곱 성구에 증거된 대로 ‘성령의 대운동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성경’ 앞에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언제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하위 체제임을 두 분 모두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

올여름,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함께 하십니다



고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
연구소 대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교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겠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눈물이 숨어 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과 함께하시는

분이다.

교회학교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곳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는 선생님을 기억한다. 멋진 프로그램보다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기억한다. 그리고 함께 웃어 준 선생님을 기억한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며 기도해 준 선생님을 기억한다.

씨앗을 자라게 하는 분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

님이다. 이번 여름에도 선생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그 씨앗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혹시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선생님보다 먼저 아이들의 마음에 가 계신다. 선생님은 훈자가 아니다. 교실의 가장 앞자리에 아이들이 앉아 있다면, 그 아이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

올여름,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손을 통해 아이들을 안아 주시고,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시며,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의 미래를 바꾸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교사가 있는 교회학교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

이번 여름, 가장 아름다운 기적은 화려한 행사에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작은 헌신에서 시작될 것이다.



보르지의 망령, 다보스의 유혹



이상명 총장
프레스티지대학교 총장

이상명의 광장과 골방(14)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세계는 두 가지 인간형의 충돌 속에 있다. 하나는 ‘다보스형’(Davos Man)이다. 전용기를 타고 스위스에 모여 기후변화와 세계 빈곤을 논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이다. 다른 하나는 ‘보르지형’(Borgia Man)이다. “우리 민족, 우리 국경, 우리 일자리”를 외치며 내부의 적을 지목하는 포퓰리즘 민족주의자들이 다. 세계는 이 두 진영의 거친 줄다리기로 흔들리고 있다.

‘보르지형’의 뿌리는 15세기 이탈리아

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사레 보르지아(Cesare Borgia)는 냉혹한 권모술수와 철저한 자기 편 결속으로 도시국가들을 장악했고, 마키아벨리는 그를 『군주론』(Il Principe, 1532)의 이상적 모델로 삼았다. 도덕보다 효율을, 이상보다 현실을 앞세운 이 논리에서 세계는 ‘우리’와 ‘적’으로만 나뉘고, 권력은 공동선이 아닌 집단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 보르지형 인간은 개방과 보편 대신 경계와 혈연을 선택하고,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한다. 그런데 ‘다보스형’ 또한 무해하지 않다. 이들은 국경과 혈연의 폭력을 넘어섰다고 자부하지만, 종종 그 대가를 치른다. 특정한 이웃에 대한 구체적 책임이 추상적 인류애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뿌리 뽑힌 세계시민은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옆집 사람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결국 보르지형이 특수성을 절대화해 폭력을 낳는다면, 다보스형은 정반

대의 길에서 같은 곳에 이른다 — 보편성을 추상화하다가,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무관심에 다다르는 것이다. 둘 다 복음이 요구하는 ‘얼굴 있는 이웃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이 두 위험이 국회의사당이나 국제회의장 바깥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보르지형 정치는 공동의 적을 필요로 하고, 그 적대감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폭시키는 도구가 종교적 언어다. 1932년 결성된 ‘도이체 크리스텐’(Deutsche Christen) 운동은 이듬해 루트비히 뫼러를 제국감독으로 세우며 예수를 아리아인 투사로 재해석했고, 이는 곧 국가교회 전체의 공식 노선이 되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나마타와 은타라미의 교회 건물 자체가 학살의 현장이 되었다 — 피난처를 알리던 종소리가 도리어 학살자들에게 은신처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로 뒤바뀐 것이다. 반

면 다보스형의 교회는 국경 없는 인류애를 설교하면서 정작 특정한 지역, 특정한 회중, 특정한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체적 헌신은 흐릿하게 만든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선언했다. “너희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느니라”(3:28). 인간을 혈통과 국경으로 먼저 정의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학적 저항이다. 그런데 같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고백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9:3). 바울은 보편과 특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지 않았다. 그는 그 긴장을 살아냈다 — 보르지형의 배타성도, 다보스형의 무관거한 보편성도 아닌 방식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은 이 긴장을 가장 예민하게 감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면서 한국인이고, 세

계교회의 일원이면서 한인 공동체에 뿌리를 둔다. 보르지형의 언어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부의 적’으로 지목될 수 있는 자들이며, 동시에 다보스형의 언어에서는 뿌리를 지우고 무색무취의 세계시민이 되라는 유혹 앞에 선 자들이기도 하다. 이 이중의 취약성은 동시에 책임이다. 우리는 두 인간형이 복음을 어떻게 탈취하는지를 몸으로 안다. 그 앞이 오늘 우리에게 발언권을 준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기억한다.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11:13). 성서의 인간은 어느 한 진영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 뿌리는 잊되 집착하지 않고, 열려 있되 떠내려가지 않는 존재 — 그것이 순례자의 정체성이다. 그 소명은 설교단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한 한인 이민교회는 인근에 새로 정착한 라틴계 이민자 가정들을 위해 처음으로 스

페인어 예배를 열었다. 서른 명 남짓 모인 자리에서 한국어 찬양과 스페인어 찬양이 번갈아 울렸고, 예배가 끝난 뒤 식탁에는 김치와 살사가 나란히 놓였다. 거창한 선언이나 정책 성명 없이, 그저 한 끼의 식사와 한 시간의 예배가 ‘얼굴 있는 이웃’을 만들어냈다. 이민자와 난민을 환대하는 이런 구체적 실천, 타 민족과 함께 하는 예배와 식탁,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도 ‘추상적 인류’도 아닌 ‘이웃’의 인어를 가르치는 가정과 교회의 교육 — 이것이 신학적 저항의 삶과 피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은 보르지의 망령만이 아니다. 얼굴 없는 다보스의 유혹도 함께 막아야 한다. 순례자는 지도를 외우지 않는다. 다만 오늘 마주친 이의 얼굴을 잊지 않을 뿐이다. 국경에 갇히지도, 얼굴을 지우지도 않는 것 — 그 얼굴 하나를 기억하는 일에서, 우리의 순례는 오늘도 계속된다.

우리 모두는 귀향을 꿈꾸는 오디세우스다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평택

전쟁은 끝나도 사람들의 방향은 끝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폐허가 된 도시,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가족들, 중동 분쟁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가?”

놀랍게도 이 질문은 3천 년 전에도 동일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전쟁과 귀향이라는 인간의 깊은 경험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담았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디세이》를 다시 영화로 불러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은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분노와 명예를 노래한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적보다 자신의 내면과 싸워야 했다. 분노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했다. 《오디세이》는 전쟁 이후의 이야기다. 승리한 영웅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10년 동안 바다를 떠돈다. 폭풍과 괴물, 유혹과 절망을 지

나며 그는 깨닫는다. 인간이 진정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정복지가 아니라 돌아갈 집이라는 사실을.

놀란 감독은 이 ‘귀향’이라는 주제를 현대의 언어로 다시 해석한다. 오늘의 인간은 인공지능과 무한 경쟁, 관계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고, 더 넓게 연결되었지만 영혼은 더욱 외로워졌다. 어쩌면 현대인은 길을 잃은 오디세우스인지 모른다.

성경 역시 귀향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났고,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다. 그리고 예수는 당자의 비유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보여 주셨다.

집을 떠난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끝까지 기다렸다. 복음은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광세(Pensées)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이 성공과 재물, 명예를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기에.

오늘 세계는 또 다른 트로이 전쟁을 치

르고 있다. 전쟁뿐 아니라 세대 갈등, 경제적 불안, 기후위기와 공동체의 해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우리는 승리하는 법은 배웠지만 돌아오는 법은 잊어버렸다. 성취하는 법은 알지만 사랑을 회복하는 법은 잃어가고 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 호메로스는 영웅의 귀향을 노래했고, 복음은 죄인의 귀향을 노래한다. 하나는 이타카를 향한 항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한 귀환이다. 그러나 두 이야기는 결국 한곳에서 만난다. 인간은 모두 돌아갈 집을 찾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오디세이이다.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때로는 길을 잃는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가장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트로이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다. 그러나 인간의 귀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떠났느냐가 아니다. 끝내 어디로 돌아오느냐이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복된 귀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곳에서 인간은 비로소 잃어버린 평안과 참된 안식을 찾는다.

소명자로 살고 있는가?



박진호 목사
인터넷 기독교 문서 사역자

사도행전 7:17~36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7:33)

예수 부활의 도를 전했지만 성전과 율법을 부인했다고 참소당한 스테반은 예수는 그 돌보다 앞선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라고 변증하는 중이다. 지금 스테반이 출애굽의 구원자 모세의 생애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이 예언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음을 입증하려는 뜻이었 다. 그럼 어떤 점에서 예수가 모세와 닮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 그의 후손이 사대 만에 돌아온다는 때가(창15:13) 다가오매 한 구원자를 예비하셨다. 아기 모세는 남자는 태어나자 다 죽여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아 도리어 바로의 궁전에서 첫 40년을 지나며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되었다. 그

러다 동족을 구하려 애굽 관원을 죽인 것이 탄로나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피신해야 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의 원흉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창3:15) 때가 차매 한 아기를 보내어(갈4:4)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셨으니(요1:29) 헤롯왕의 핍박을 피해 애굽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마2:13-18) 예수도 애굽에서 지혜가 자라 열두 살에 성전에서 랍비와 하나님 말씀으로 변론을 할 정도가 되었다(눅2:41-52)

모세는 자기 생명을 찾던 자가 죽자 떨거나 무 불꽃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 출애굽 사역을 시작했다. 예수도 그의 생명을 찾던 헤롯이 죽었다는 하나님의 현몽을 아버지 요셉이 받아 나사렛으로 돌아왔고(마2:19-23) 나이 삼십이 되자 주님께 받은 소명대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 모세가 나이 사십에 형제들을 돌볼 열의를 품고 압제하는 애굽 관원을 죽였으나 오히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35절)고 동족들의 배척을 받았다. 예수도 고향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도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배척을 받았다. 그런 돌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모세는 애굽의 노

예에서, 예수는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케 했다.

스테반의 이 짧은 변증에도 많은 유사점들이 나온다. 결코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 필연이 겹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다. 모세 이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모세와 닮은 선지자는 예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대로 당신께서 예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세우셨다. 이 돌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였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돌은 백성에게 배척되었으나 하나님이 세웠고 또 전 생애를 오직 자신들의 소명을 실현하는데 다 바쳤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가는 대로만 따랐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려나와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로 그랬지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었다는 점만 다르다. 인간 구원자 모세가 하나님 이신 구원자 예수를 예표 한 것이다. 예수는 모세와 비슷해도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스테반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가 부활생명의 주관자일 수밖에 없고 그 은혜는 고소자인 너희들에게도 베풀어질 것이라고 변증한 것이다.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에서 불려나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예수는 몰라도 모세와 닮은 일생을 보내야 한다. 평생토록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명자로 살고 있는가?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2026 OCC선물상자 사역 시작

8월 3일부터 참여 신청 시작...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 상자 몽골·필리핀·캄보디아에 전달 예정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대표 오기선)가 8월 3일부터 2026년 OCC선물상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올해도 국내 교회와 학교, 기업, 기관 및 개인 참여자들을 모집해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상자를 준비하고, 이를 해외 선교 현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OCC선물상자 사역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사역이다. 'OCC'는 'Operation Christmas Child'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크리스마스 어린이 선물 대작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사역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은 OCC선물상자를 받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후 성경을 배우며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 과정에 초대한다. 이를 통해 선물 전달과 복음 전도, 성경 교육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사역이 진행된다.

◆ 1993년 보스니아 어린이에게 시작된 OCC선물상자 사역

OCC선물상자 사역은 1993년 사마리안퍼스 국제 본부 회장인 프랭클린 그라함(Franklin Graham) 목사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스니아 어린이들에게 신발 상자에 손 편지와 선물을 담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역은 세계 각국으로 확대됐다. 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170개국 이상의 2억4천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OCC선물상자가 전달됐으며, 이 가운데 5천210만 명이 제자 양육 과정에 참여했다. 또 2천700만 명의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OCC선물상자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후원자가 정해진 금액을 후원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어린이에게 전달할 선물을 직접 준비하는 현물 기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는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를 통해 선물 상자를 무료로 신청한 뒤 선물을 받은 어린이의 성별과 연령대인 2세부터 14세까지의 대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상자를 준비한다. 학용품과 의류, 장난감, 위생용품 등 어린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골라 담을 수 있으며, 손 편지와 사진을 함께 넣어 축복과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다.

준비된 OCC선물상자는 11월 16~23일 진행되는 수집 기간에 전국의 드롭센터로 직접 가져가거나 택배를 이용해 사마리안퍼스 물류센터로 보낼 수 있다.

한국에서 준비된 선물 상자는 이후 검수 과정을 거쳐 해외 선교 현장으로 전달된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을 포함해 사마리안퍼스와 협력하는 세계 각지의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선물 상자 받은 어린이, 현지 교회에서 복음과 제자 양육 과정 참여

현지에서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어린이들을 초청해 전도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한 뒤 OCC선물상자를 나눠준다.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은 이후 제자 양육 과정에 초대돼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된다.

제자 양육 과정은 모두 12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은 '복음 알아가기',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 '복음 전하기' 등의 내용을 배우며 신앙을 이어간다. 과정을 마친 어린이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신앙성경이 전달된다.



벨리즈의 어린이들이 OCC선물상자를 전달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이 과정에서 OCC선물상자는 어린이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전달하는 통로인 동시에 현지 교회와 어린이들이 만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접점으로 활용된다.

OCC선물상자 사역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장년부 등 교회의 여러 부서가 함께 선물 상자를 준비하면서 세대가 함께 선교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선교와 나눔의 의미를 실제적인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선물 상자를 받게 될 해외 어린이들과 현지 제자 양육 과정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 해외 선교 현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 차원의 참여도 가능하다.

지역 교회와 기관은 OCC선물상자를 모으는 드롭센터로도 참여할 수 있다. 드롭센터는 지역에서 준비된 선물 상자를 수거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교회와 기관이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 기도리더십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 참여 가능

OCC선물상자가 실제 해외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기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OCC선물상자 사역을 통해 진행된 제자 양육 과정을 마친 뒤 수료증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도 파트너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어린이들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도 파트너들은 사역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받으며 지속적으로 기도도 참여할 수 있다.

커넥트 리더십 팀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커넥트 리더십 팀은 각 지역에서 OCC선물상자 사역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안에서 사역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게 된다.

연말에는 OCC선물상자를 직접 접수하는 자원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준비된 선물 상자는 연말에 프로세싱 센터에 모여, 봉사자들은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물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상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해외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훼손되거나 손상된 상자를 보수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검수 자원봉사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10월 이후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CC선물상자를 통해 복음을 접한 어린이들의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다. 남아프리카 파나마에 사는 마이켈은 11세 때 처음 OCC선물상자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다.



작년 프로세싱 센터에서 상자를 접수한 자원봉사자들 사진.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마이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사마리안퍼스가 진행하는 제자 양육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과정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백혈병 3기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항암치료를 받는 가운데서도 마이켈은 제자 양육 과정을 계속했다. 담당 교사는 영상통화를 하거나 직접 병문안을 하는 방식으로 마이켈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마이켈은 치료와 제자 양육을 함께 이어갔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마이켈은 제자 양육 과정을 마쳤다.

몇 년이 지난 현재 마이켈은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시 다른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는 현지에서 제자 양육 교사로 활동하며 어린이들에게 OCC선물상자를 전달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 화재로 집 잃은 칠레 어린이도 OCC선물상자로 위로 경험

칠레의 페르난다는 가족은 2025년 화재로 집을 잃는 어려움을 겪었다.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을 한순간에 잃은 페르난다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현지 교회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OCC선물상자를 받았다.

페르난다는 선물 상자 안에 담긴 물품을 보면서 자신이 필요로 했던 위로와 사랑을 느꼈다고 전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물을 준비해 주고 사랑을 전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다는 것이다.

1년이 지난 현재 페르난다는 당시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다른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OCC선물상자를 통해 위로를 경험했던 어린이가 다시 다른 어린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에 사는 모네크 역시 어린 시절 OCC선물상자를 통해 복음을 접한 사례다. 모네크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던 12세 때 OCC선물상자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공과 곰 인형 편지 등이 담겨 있었다. 모네크는 선물을 통해 기쁨과 위로를 경험했으며 이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 현재는 현지 교사로 활동하며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제자 양육 과정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OCC선물상자를 받은 어린이들이 단순히 선물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배우며, 이후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2026년 OCC선물상자 사역을 위해 국내 교회와 학교, 기업, 기관 및 개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체의 사역을 이끄는 프로젝트 리더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진행해 각 공동체가 OCC선물상자 사역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 OCC선물상자 신청은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일까지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장기후원과 일시후원을 통해서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후원금은 선물 상자를 해외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현지에서 선물 상자를 전달하는 전도 집회 등 OCC선물상자 사역 전반에 사용된다. 장지동 기자

우리 아이의 반짝이는 강점을 바라봐 주세요

굿네이버스, 더 좋은 양육 캠페인 시즌4 '반짝이는 우리 아이' 전개

굿네이버스는 부모가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더 좋은 양육 캠페인 시즌4 '반짝이는 우리 아이'를 전개한다.

부모는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하는 것보다 부족한 점을 먼저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는지는 아동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2022)와 한국아동교육학회의

「유아 강점 증진 긍정심리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2021)에 따르면, 자녀의 부족한 점을 지적·통제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끈기, 열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녀의 강점에 주목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행동도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성급하고 고집이 세다'고 여겼던 모습에서 '주도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강점을 발견하거나, '행동이 느리고 굼뜨다'고 생각했던 모습에서 '신중하고 깊게 탐색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녀의 행동을 약점이 아닌 강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 전환'을 제안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

'반짝이는 우리 아이' 캠페인은 굿네이

버스가 제안하는 강점 중심의 양육을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자녀의 행동 속 강점 발견하기 ▲강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제공하기 ▲결과보다 과정과 강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등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캠페인 참여자는 자신의 양육 시선을 점검하고 자녀의 숨은 강점을 찾아본 뒤, '아이의 강점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다짐에 참여할 수 있다.

임경숙 굿네이버스 아동관리유희부장장은 "아이와 가진 고유한 특성을 평소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장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의 강점에 주목하는 양육이 더 많은 가정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권리가 가정에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 좋은 양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반짝이는 우리 아이' 캠페인은 굿네이버스 공식 홈페이지와 전국 38개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니엘 최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망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류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세례를 받은 자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류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의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사회복지학,상담학,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평생교육원)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 66**

「바른예수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차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절대 이치」의 신분으로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담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유대민족 앞에서, 예수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하게 여기는 「안식일 계명」을 무시하는 인간으로만 보였으며, 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 저소인 성전도 인정하지 않는 불학 무도한 자였습니. 더욱이 예수님을 자기네 믿음의 초상인 아브라함까지 하대하는, 한참 모자라는 인간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 더구나 유대 민족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고위층 인간들, 예컨대 백성들의 장로, 유대교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에게 어쩌다가, 저런 무지몽매한 인간이 나타났는가! 하고 격분하였습니. 그레도 서민층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도 다스긴 있었지만, 그들 중에도 예수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는 자는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자기들 선생에 대하여 깨달은 정도가 아주 미미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가령 예수의 수제자로 일컬어졌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저 사람(예수)을 모른다」는 말이 세 차례나 토해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라 해도, 예수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유대민족에 있어서는 더욱더 예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지요. 금기(禁)는 예수를 사형수로 단정을 지었고,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민중이, 아무리 지도자들의 선동과 회유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하였다 해도, 저들은, 「무죄한 예수를 죽게 한 죄의 대가를 자기들과 자기 자신들에게 돌려라」고 외친대로 지금도 보증을 받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예수의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이를 원통하고 슬퍼하여 애곡하는 사람들도 발간 없었고, 모친 마리아 등 몇몇 여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심를 정도였습니. 제자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 곳에 숨어 있을 정도였고, 예수님이 「7」서 기다려라,는 갈릴리에도 나중에서야 갔지요. 우리 주 예수는 과연, 「죽어 마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겁니까?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교회(김한규 010-4017-8696)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성원계좌 :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 010-8913-7777
· 한샘교회 :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토픽등 대용량 단어장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장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탈무드의 지혜 파문힌 솔로몬의 보물

어느 마을에 아들에게 날마다 '빵'을 물에 던져 라. 마치 알아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날마다 호수에 가서 조금씩 빵을 떼어 던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똑같은 물고기가 나타나 그 빵을 받아먹는 것이었다. 물고기는 매일 매일 던져주는 빵을 받아먹고 몰라볼 정도로 자랐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곳에 사는 다른 물고기들을 위협하게까지 되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은 한데 모여 물고기의 왕 레비아탄에게 찾아가 호소를 했다.

“저희 넷모를 굉장하 큰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그놈은 날마다 저희 동료들을 스무 마리씩이나 잡아먹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레비아탄은 즉시 부하를 보내어 그 악명 높은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그러나 악명 높은 물고기는 그 물고기를 잡으려 간 자들까지 잡아 먹고 말았다.



화가 난 레비아탄은 또 다른 물고기들 보냈으나 역시 큰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다. 안되겠다

싫어진 레비아탄은 자신이 직접 큰 물고기를 찾아 가서 꾸짖었다.

“이 호수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너처럼 큰 놈은 처음 본다.”

“그럴 겁니다. 이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가 매일 내게 먹이를 던져주어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몸이 커지다 보니 식사도 많이 하게 되어 아침에 고기 스무 마리, 저녁엔 서른 마리씩을 먹어야 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네 동료를 잡아먹어서야 쓰겠느냐? 죄는 네가 그렇게 자라도록 빵을 던져준 사람에게 있을 것 같도다. 내일 나에게 먹이를 던져준 자를 끌고 오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레비아탄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는 젊은이가 항상 먹이를 던져주곤하는 제방으로 가서 젊은이가 떨어지도록 함정을 파두었다. 다음날 젊은이는 평소 애 하던 대로 먹이를 던져주려 제방으로 갔다가 갑자기 함정에 빠져 버렸다.

물 속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물

고기는 그를 꿀꺽 삼키고는 물 속을 헤엄쳐 레비아탄에게로 갔다. 레비아탄은 그 인간을 토해내도록 해서는 자신의 임으로 삼켰다.

레비아탄은 젊은이에게 물었다.

“너는 왜 빵을 물 속에 던지느냐?”

“선진계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말을 어감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레비아탄은 젊은이를 다시 토해 놓았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있는 일흔 가지 언어를 가르쳐 주고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혼자 두고 가버렸다. 그곳은 아직 인간의 발이 닿은 적이 없는 곳이었다.

젊은이가 그 섬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어디선가 까마귀 두 마리가 날아와 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아버지, 저 인간을 보세요. 살았을까요, 죽었을 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걸.”

“인간의 눈알을 하나 파올까요?”

“내려가지 마라. 만약 저 인간이 살아 있으면 넌 욕을 보게 돼.”

그러나 아들 까마귀는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이 누워 있는 곳으로 날아왔다. 레비아탄 덕분에 까마귀가 주고받는 말을 모두 알아들은 젊은이는 아들 까마귀가 가까이 오자 얼른 다리를 움켜 잡았다. 아들 까마귀는 비명을 지르며 구원을 요청했다. 아버지 까마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젊은이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제 아들놈을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대신 좋은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지금 누워 계신 곳을 파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의 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젊은이는 아들 까마귀를 놓아주고 곧 누워 있는 곳을 파보았다. 그러자 까마귀의 말대로 솔로몬의 보물이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었다.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고 실천했던 그 젊은이는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으며 자기 자식들에게도 막대한 재산을 남기게 되었다.

사람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공

믿음의 열조들을 찾아서 언더우드 (1)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元杜尤, 1859-1916)는 1859년 7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아버지 존(John Underwood)과 어머니 엘리자 벤(Elisabeth Grant Marie)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1881년 뉴욕대학을 졸업하여 문학사학위를 받고 그해 가을 '뉴 브런즈윅' 시에 있는 화란 개혁 신학교(The Dutch Reformed Theologica Seminary)에 입학하였다. 언더우드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업에는 물론 전도활동에도 열심을 내었다.

1883년 여름과 이듬해, 즉 신학교 마지막 해에 그는 뉴 저어지(New Jersey) 주 폰턴(Pomton)에 있는 교회를 맡았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동안 언더우드는 선교사의 비전을 갖게되었고 1884년 11월 목사안수를 받고 뉴욕 시에 있는 한 교회의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인도선교를 위하여 의학을 1년간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는 엘리우드 박사의 지원과 '맥월리암스'의 기부(6천달러)로 1884년 7월 28일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에 의하여 한국 최초의 목회선교사(Clerical Missionary)로 파송되었다.

언더우드는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1월 25일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그는 한국 사회가 갑신정변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본에 우선 정착하였던 것이다. 그는 일본에서 험번(C. Hepburn) 박사의 집에 기거하면서 선교사업에 필

요한 훈련을 받는 한편 미국 선원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열었고, 이수정에게서 2개월간 조선말을 배우고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부임하였다.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도착한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다. 언더우드는 4월 7일 위험을 무릅쓰고 상륙하였다. 언더우드는 이 당시부터 아펜셀러와 함께 이수정 번역의 마가복음을 재 번역하기 시작했으며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하고 1886년 3월 29일 설립된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목사, 혹은 선교사라고 공공연히 드러낼 수 없었으나, 제중원 교사라는 직함은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의 선교사업에 위하여 좋은 것이 되었다.

언더우드는 1885년 말부터 고아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1886년 2월 14일 미국 공사관을 통해 정부에 설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김윤식의 승인을 얻었다. 고아원의 원장은 조선인이었으나 실제 운영은 언더우드가 맡았다. 언더우드는 고아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장차 대학이나 신학교로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고아원 학생들 중에는 우사 김규식(尤史 金奎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후에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로녹대학(Roanoke College)에 유학하고 귀국하여 언더우드의 비서로, 새문안교회의 장로로, 경신학교의 교사로, YMCA의 지도자로, 중국 망명 후에는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임법위원 의장을 역임하였으나 한국 전쟁기에 납치되었다.

언더우드는 각처에 수많은 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각종 교육기관을 세우고 관여하였으며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고, 제중원은 1900년 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시에 거주하는 세브란스(L. H. Severance) 씨가 거액을 기부하여 병원을 세웠다.

고아원은 후일 경신학교가 되게 하였으며 1895년 새문안교회의 경영으로 영신(永信)학당(후일 협성학교가 됨)을 세웠다. 그는 또한 교회 구역마다 초등학교를 세웠다.

1900년대에는 두개의 신학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서울 소재 감리교의 파어슨 성경학원과 장로교의 평양신학교였다. 언더우드는 신학교의 설립 초기부터 평양에 내려가 교수하였다.

언더우드는 고등교육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설립을 구상하여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였는데, 1915년 3월 5일 언더우드를 교장으로 하여 미국 북장로교,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등 각 선교부와 연합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청년회 회관에서 60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경신학교 대학부'가 연희전문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언더우드는 서울에 들어와 서서히, 그리고 착실히 활동을 전개하여 1887년 9월 27일 정동에 있는 자기 집 사랑방에 14명의 조선인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새문안교회의 시작이었다. 교회 창립에 모인 14명 중 13명은 언더우드가 입국하기 전 만주에서 로스(John Ross)목사로

부터 세례를 받았던 서상윤 등의 인도로 신자가 된 이들이었다.

새문안교회는 언더우드와 서상윤 등 초기 조선 신자들과의 공동 노력으로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새문안교회는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 조선인 신자의 첫 교회였다.

언더우드는 1880년대 후반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수행하였는데 제1차 전도여행(1887년 가을)은 개성, 솔네, 평양, 의주 등이었고 제2차 전도여행(1888년 봄)은 아펜셀러와 동행하여 평양까지 갔다가 선교부의 소환으로 돌아온 시기이다.

제3차 전도여행은 1889년 봄 신혼여행을 겸하여 개성, 솔네, 평양, 의주 강계, 압록강변의 마을 등이었다. 국내의 전도여행의 성과는 지대한 것이었다.

언더우드는 어학에 관심이 많아 다방면의 사전편찬을 주도했다. '한-영문법'이란 책을 출간하였는데 첫부분은 문법 주석이었고, 둘째 부분은 영어를 조선말로 번역한 것으로 도합 총 425면이었다. 이 책은 1914년에 개정되어 사용되었다.

두번째 책은 1890년 요코하마에서 간행된 '한어사전'이었다. 처음 조선에 부임하였을 때 사전의 필요를 절실히 느낀 그는 5년여 동안 단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첫째부는 게일(James S. Gale)의 도움과 한불자전(韓佛字典) 그리고 어학선생 송순운의 도움을 받아 한영부(韓英部)로 둘째부는 험버트(Homer B. Hulbert)의 도움을 받아 영한부(英韓部)로 편찬하였다. <계속>

열방선교단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Genesis 28:16 NIV
When Jacob awoke from his sleep, he thought,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was not aware of it.”

- ☞ 이 문장에서 when은 'after'로 해석됨
- awake: (잠에서) 깨다
- surely: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
- ☞ 여기에서 and는 'nevertheless'의 뜻을 가짐
- be aware of: ~을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는 생각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뇌치유상담/신경신학편(27) **신경가소성, 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니까



손매남 박사
648

콘크리트가 아닌 진흙으로 지어진 뇌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성격은 절대 안 변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며 변화의 가능성을 담아버리곤 한다. 오랜 세월 굳어진 상처와 역기능적 성품은 마

치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뇌는 결코 수정이 불가능한 딱딱한 기계가 아니다.

최신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는 바로 뇌가 평생 변화하고 재배선된다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의 원리이다. 가소성(Plasticity)이란 진흙이나 플라스틱처럼 외부의 압력에 따라 모양이 유연하게 변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뜻한다.

구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신경가소성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며,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물리적 구조와 지도가 실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사용하는 생각의 길은 고속도로처럼 넓어지고, 사용하지 않는 생각의 길은 잡초가 우거진 오솔길처럼 점차 사라진다.



최신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는 바로 뇌가 평생 변화하고 재배선된다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의 원리이다.

이 역동적인 원리는 이사야 64장 8절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의 신비로운 성취이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남과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을 위해 우리의 뇌를 ‘유연한 진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토기장이 되신 주의 손길은 굳어진 뇌의 지도를 깎아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의 뇌를 다시 빚어 가신다.

마음의 변화가 가져오는 물리적 재배선

신경가소성은 치유가 단순한 감정의 정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구조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오랜 시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불을 켜듯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Amygdala) 신경망을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뇌치유상담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놀

랍게도 편도체의 과활동은 줄어들고 이성과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신경망이 두꺼워진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뇌과학적으로 신경가소성을 통해 뇌의 물리적 회로를 새롭게 재배선하라는 명령과 같다. 과거의 상처가 새겨진 옛사람의 회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새 사람’의 신경망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증명하는 영적 성화의 신비이다.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강지윤 칼럼 **하나님, 상처 주지 마세요!**



강지윤 박사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 길을 가다 돌 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만 해도 무릎이 깨질 수 있는 약한 신체와, 누군가 자신을 향해 욕한 마디만 해도 마음이

깨지는 연약한 심리구조를 가진 그런 존재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는 존재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센 척해도, 모든 인간은 오십 보 백 보일 뿐이다. 거기다 일반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보다 더 사악한 인간이 자신의 주위에 있거만 해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진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이 받은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마치 자기 성격의 일부처럼 돼 버리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만이 내면에 가득 차게 된다는 점이다. 마침내 왜곡된 심리적 문제가 하나님께 투사된 채 회화를 다니게 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처받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 상처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신정론이니 교회론이니,

혹은 조직신학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처 때문에 너무 아프고 굶아 버려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처 주신다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라니하게도 크리스천들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신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 역시 그랬었다. 언젠가 어느 고통스러운 기억의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었었다. “하나님, 상처 주지 마세요. 왜 저에게 상처 주시나요? 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않으시고 상처를 주시나요?”

내가 치유자가 된 이후, 예전의 나처럼 하나님께 상처받는다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심한 상처를 받아온 사람들로써, 영혼에 고인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상처를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지는 않구요.”

성경 어디에도 ‘상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상처를 싸매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에 대한 사랑을 결코 끊지 않겠다고 하신다.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심각한 상처를 하나님께 받고 있을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 무의식에서 일어난다. 의식의 차원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차곡차곡 쌓이면, 점점 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되고,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깨달음’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깨달음(통찰)의 순간을 지나 치유가 많이 일어나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처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위의 관계에서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상처 주지 마세요! 부부싸움도 하세요. 그러나 상처 주지 마세요. 자녀를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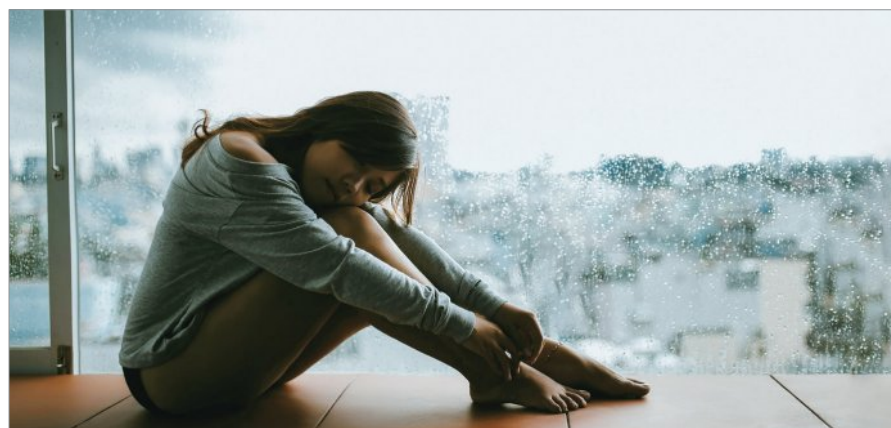
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를 밀어내며 떠나기를 원하는, 상처 입은 아이들을 본다. 남편에게 상처받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떠나는 아내들을 본다. 교인들에게 상처받아 하나님이 상처를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를 떠나는 것을 본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인간의 잘못 때문에 오해 받으시는 하나님.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인간의 세계에서,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이상하게 활용하고 있는 인간의 미련하고 우둔한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의식적으로 ‘상처 주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쌓아 주게 되고, 그가 영원히 떠나 버리게 만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성경 전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연약



하여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살갗이 찢겨 피를 흘리게 되고, 마음이 찢겨 붉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존재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가 뭐 그리 잘났는가. 뭐가 그리 강한가. 겸손한 낮아짐이 그를 더욱 돋보이고 훌륭하게 한다. 이런 겸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낮아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게 된다. 이미 받은 상처는 치유받아야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상처는 내가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면 된다. 일부러 타인에게 가해하는 인간이

가장 사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것이 사람인데, 일부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 그 모든 사악한 짓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다.

아, 하나님은 결코 상처 주는 분이 아니시다. 만약 마음 한 구석을 들춰 하나님께서 주신 상처가 남아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아직 치유가 덜 된 것이다. 치유의 끝에 서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온화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Rafa Sulfur Spot Pine Shampoo Bar

소나무 숲에서 즐기는 유황 온천욕

9가지
에센셜 오일

All In
One

올인원
멀티 케어

유황 온천의
40,240배 농도

10가지
자연 유래 추출물

고객상담센터
쇼핑몰 주소

043-900-0367 / 043-900-0377
www.rafarophe.com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2026 예성 전국청소년 연합수련회 개최

8월 3~5일 ‘ReBorn’ 주제로 성결대서 열려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에서 전국 예성 청소년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2026 예성 전국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진행됐다. 성결대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학생부가 주최하고 예성청소년사역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수련회가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교내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ReBorn(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의 예성 청소년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에서는 주제 강연을 비롯해 공연과 체험활동, 공동체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저녁 프로그램에는 최현 목사(일산증가교회)와 최창수 목사(수지예본교회)가 강연자로 나섰고,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서중현 선교사(ETM선교회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 문화와 체험을 접목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AW Worship 공연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는 ‘Yesung’s God Talent’가 진행되며, 미션형 방탈출 프로그램인 ‘CODENAME 517’도 운영됐다. 이와 함께 콘서트와 공동체 레크리에이션, 워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련회는 강연에만 집중하기보다 문화공연과 체험활동, 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또래와 교류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성결대학교는 수련회 기간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 시설과 운영을 지원했다. 한편, 이번 연합수련회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또래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진행됐다. 장지동 기자



성결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2026 예성 전국청소년 연합수련회’ 개최 프로그램 사진. ©성결대



성결대학교에서 열린 ‘2026 예성 전국청소년 연합수련회’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성결대

동서대, 한-아세안센터·부산 주요 대학과 아세안 교류 협력 확대

교육·학술·문화 분야
업무협약 체결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가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재신)와 부산 지역 주요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세안 지역과의 교육·학술·문화 교류 확대에 나선다. 한-아세안센터는 지난달 27일 국립부경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교육·학술·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아세안센터가 부산 지역 대학들과 다년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교류를 지역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교류 협력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와 3개 대학은 한-아세안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아세안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출판물을 교류하는 한편, 학술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학생과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교육과 학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도 추진된다. 한-아세안센터는 오는 9월 국립부경대학교



한-아세안 교육·학술·문화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 사진. ©동서대

에서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3개 대학과 함께 ‘아세안 신입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십 프로그램’을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지역 대학에 새롭게 입학한 아세안 유학생들에게 한국 생활과 학업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아울러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아세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강연과 선배 멘토링 기회를 제공해 국내 취업과 진로 탐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아세안센터는 이번 MOU를 계기로 부산 지역 대학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고, 향후 한-아세안 간 교육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부산 지역 대학 세 곳과 동시에 협약을 맺은 것은 한-아세안 교류의 저변을 지역으로 넓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청년 간 상호 이해와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서대도 이번 협약을 아세안 지역과의 국제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남호수 동서대 총괄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동서대학교가 아세안 지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국제기구 및 지역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세안 청년들이 지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현 동서대 엔지니어링단장은 “이번 협약은 아세안 우수 유학생 유치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맞춤형 교육과 정주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서대와 한-아세안센터를 비롯한 협약 기관들은 향후 교육·학술·문화 분야의 공동 사업과 학생·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고,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 청년 및 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총신대, 우간다 RTC와 업무협약 체결

총신대학교(총장 박성규)가 우간다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해 한국어 교육부터 유학생 지원, 학술 교류에 이르는 국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총신대학교는 지난 6일 사당캠퍼스 주 기철기념홀에서 우간다 캄팔라에 위치한 Reformed Theological College(개혁신학대학·RTC)와 교육·학술 및 선교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성규 총장을 비롯해 황선우 기획혁신본부장, 조기현 미래지식교육처장, 김동명 국제교육원장, RTC 김종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협력 방향과 향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존중과 개혁주의 신학적 유대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교육 및 학술 교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우간다 학생들의 총신대학교 유학을 지원하고, RTC 캠퍼스 안에 총신대학교와 연계한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 기관은 RTC 내 한국어교육센터를 통해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우간다 학생과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과정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할도

양 기관이 나눠 맡는다. RTC는 센터 운영을 위한 강의실과 기본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고 현지 학생 모집과 홍보, 행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총신대학교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한국어 교사의 자격 심사와 수료 기준 마련, 수료증 발급 등을 지원한다. 조기현 미래지식교육처장은 이번 협약의 의미에 대해 “우간다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학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준비된 인재를 총신대학교와 연결할 수 있도록 RTC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지원체계 구축도 협약의 주요 협력 분야다. 양 기관은 우간다의 우수 인재가 총신대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 발굴과 추천, 장학 및 생활 지원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RTC는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한국어 능력과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을 총신대학교에 추천한다. 총신대학교는 국제교육원 한국어연수과정과 학부 과정에 진학하는 우간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협의한다. 이와 함께 가족사 제공과 학업 및 생활 지원,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적·사회적 네트워크 연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선우 기획혁신본부장은 “협약을 계기로 총신대의 국제화가 학생 유치에만



총신대학교와 우간다 Reformed Theological College(RTC) 관계자들이 최근 교육·학술 및 선교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신대

머무르지 않고 현지 교육기관과 함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 기관의 협력이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뿐 아니라 교수와 연구자 간 학술 교류도 확대된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학술 세미나, 특강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교수 및 전문가 교류에 협력하고, 향후 상호 합의에 따라 다양한 학술·교육 협력 사업으로 교류 범위를 넓혀간다. 조기현 미래지식교육처장은 “한국어 교육, 유학생 지원, 학술 교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신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 교육 및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코람데오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대하 16:9)



조성환 목사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기를 한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잘 달리는데 그 아이만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자 달리던 일을 다 잊고 아픈 무릎을 붙들고 앉아 울고 만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엄마였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본다. 어디선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를 말이다.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엄마의 미소 띤 눈에 힘을 얻고사는 등수에 관계없이 골인 지점을 향해 다시 달린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신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그곳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그런 자들이다. 자기의 능력의 많고 적음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들이다. 또한 마치 오랫동안 혈투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기만 해도 내가 나오리라는 믿음, 즉 더 이상 다른 치료는 없고 오직 이 길 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의 태도 말이다. 주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오던 그 여인을 치료하셨다.

어디를 가든 그곳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그런 자들이다

또한 전심으로 여호와께 행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신앙만을 가진 사

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고 독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시 18:29)”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말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우리 찬양대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의 담을 뛰어 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다고 이런 믿음을 소지한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거기서 멈춰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 즉시로 다시 그리

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 조성환 목사

초등학교 때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윤학원 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연주를 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여호사밧의 법칙 1

여호사밧 왕은 “주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배를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나..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사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대하 20: 21, 22, 24).



김영국 목사

보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사밧의 행동법칙”의 각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와 훈련

“아사가 ...죽고...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대하 16:13; 17:1,3).

여호사밧의 성공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 행정경영의 본을 따르려는 그의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다윗처럼, 그는 하나님을 자신과 나라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이 갈망은 여호사밧이 예배를 정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취했던 방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대하 17장 6절은 다윗의 원리를 따름이 예배의 정화에 대한 열심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줍니다: “자가 전심으로 여호와와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이것은 그 행동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단계였습니다.

또한 군비 증강이 지역 단위로 착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대하 17:1-2). 이것은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쾌적한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말은 “찬양”이란 뜻이므로 유다의 성읍들은 찬양의 현주소, 즉 지역 교회들로 여겨질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성읍들을 보강하는 것은 찬양하는 지역교회들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대 사회의 “유다의 성읍들” 속에 영적인 힘을 놓아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찬양과 경배의 성경적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이 적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하십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유다의 성읍에서 전국적인 교육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대하 15:3절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제사장 없이 지내왔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다윗의 원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역을 다시금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니 “저희가 여호와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대하 17:9).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내어졌다는 기록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시한 그들의 주된 책무 중 하나는 음악적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대상 16:4, 37-42을 대상 25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음악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대상 25:8). 유대인의 문서에서 나온 출처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성경말씀은 영창(음악적 낭송) 없이는 좀처럼 제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아 8장 8절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료하게 낭송함 (reading distinctively)은 동방적인 개념에 따라 표현이 풍부한 낭독에 필

수적인 운율적 언어표현과 구어의 선율적 변화의 명백한 암시이다”(A. Sendrey, Music in Ancient Israel, London, 1969, p.211). 이처럼 음악은 훈련과정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사전 준비의 결과

여호사밧의 사전 준비와 훈련의 초기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주위의 나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유다와 싸우려 하지 않았으므로(대하 17:10) 유다왕국은 변영의 시기로 들어갔습니다(대하 17:11-12).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 찬양 원리(God-glorifying principles)를 따를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시 72와 시 68:29). 전국적인 교육 운동은 유다에게 제왕들의 권세를 막아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아낌없는 찬양과 양념의 검을 사용하기를 가르쳤습니다(시 149:6-9와 엡 6:17을 대조하십시오). 그들은 승리와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도의 한 수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탄의 소행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 대신에 신령한 건강을 경험하며, 구원(deliverance) 대신에 하늘의 질서와 거룩한 속에 살고, 우물 증으로부터의 자유함 대신에 기쁨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위기 가운데서만 기도하는 대신 기도의 삶을 삽니다.

대하 18장은 여호사밧이 평화와 변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 책임을 떠맡았는지를 기술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악한 아합 왕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실수로 그는 한 전투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고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역대하 20장의 두 번째 대치국면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9장은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고비 후에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원전에 대한 그의 헌신이

전쟁에서 시험되었지만, 그의 마음과 나라가 하나님을 찾을 각오와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대하 19:3) 부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여전히 그의 불순종의 결과는 거두어야 했습니다(대하 19:2).

THE JEHOSSHAPHAT PROCESS
By Steve Griffing

◆김영국 목사

대광교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한국장로교출판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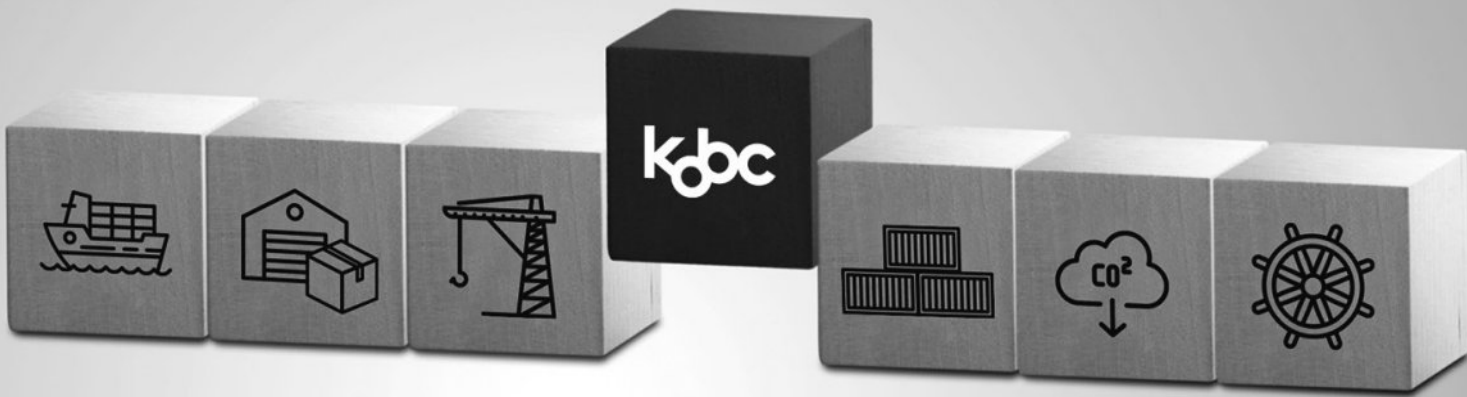
찬양한 묘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있네

광야를 지나며, 히즈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hank you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hank you
you give thanks to the Father for his love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Jesus, when I walk in the wilderness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차인표 “신애라가 만나게 해준 딸이 내 인생을 바꿔”

유튜브 채널 ‘신애라이프(Shinaelife)’ 인터뷰서 밝혀

배우 차인표가 아내 신애라를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 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신애라이프(Shinaelife)’의 인터뷰 코너 ‘유어라이프에 따르면,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차인표는 배우이자 남편, 아버지로 살아온 시간을 솔직하게 돌아봤다. 차인표는 자신을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배우

에 도전한 데 이어 소설가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최근에는 데뷔 33년 만에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올랐다. 처음엔 연극 출연을 망설였지만 신애라와 어머니의 응원으로 용기를 냈다는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봤을 때 ‘이 선택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함께 공연하는 신인 배우들에 대해서는 “나를 연극 배우로 데뷔시켜준 것은 결국 젊은 배우들”이라며 “사람은 서로의 관객이 되어주고 응원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과거 가족사진을 보던 차인표는 딸 예은 양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리며 울컥하기도 했다. 그는 “작은 생명 하나가 가족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졌다”고 회상했다. 임양을 먼저 제안한 신애라에게는 “아내가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딸을 줄 수도 있구나 싶었다”며 “당신 덕분에 참 좋은 선택을 했고, 가지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는 2013년 세상을 떠난 동생과의 이별을 꼽았다. 구강암으로

투병하던 동생 곁을 지키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이던 SBS 토크쇼 ‘뽕큐’에서 하차했다는 그는 “동생을 잃은 슬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님과 아버지를 잃은 조카, 남편을 잃은 제수씨를 먼저 돌봐야 했던 시간을 털어냈다. 동생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손을 잡고 기도해준 신애라에 대해서는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장면 중 하나”라며 “견디기 힘든 이별의 순간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결혼 31년 차인 두 사람은 이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 미처 꺼내지 못했던 마음을 나



유튜브 채널 ‘신애라이프(Shinaelife)’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 ©영상 캡처

났다. 김진영 기자

CTS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북콘서트’ 전국 투어 개최

CTS기독교TV가 사단법인 꿈이있는미래와 함께 AI 시대 한국교회 다음세대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북콘서트: NEXT SIGNAL’을 전국에서 개최한다. CTS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가 주최하는 이번 북콘서트는 지난 7월 30일 유튜브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채널에서 진행된 온라인 생중계를 시작으로 대전과 여수, 원주, 포항 등 지역교회를 차례로 찾는다.

전국 투어는 오는 18일 대전 동대전성결교회, 20일 여수 여천제일교회, 25일 원주 충정교회, 27일 포항 충진교회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다음 세대가 보내는 신호를 포착하라”를 중심 메시지로, 다음세대 사역 현장의 변화와 교회학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목회교육 방안을 나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은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시대 청소년과 청년의 신앙·생활 변화를 분석한 책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세대가 경험하는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역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책의 저자들과 함께 AI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세대의 현실을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이들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어

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투어 북콘서트에서는 지용근 대표와 공동저자 백상원 꿈이있는미래 소장을 비롯해 합승수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신형섭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함영주 종신대학교 교수가 지역별 강연을 맡는다. 정영진 브리자임팩트사역원 대표와 홍정수 교회학교연구소 소장도 강연자로 참여해 다음세대 교육과 목회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역 방안을 나눌 예정이다.

지역별 북콘서트에서는 전문가 강연에 이어 패널토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강연 내용을 토대로 각 교회가 마주한 다음세대 사역의 고민을 나누고, 교회학교와 가정, 공동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한다.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는 CTS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부터 진행해 온 목회자 대상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목회자 코칭 프로그램인 ‘목회 코멘트’를 운영해 왔다. 다니엘 최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광림교회 제38회 호렙산 기도회 25일자 지금 네가 어디로 가느냐? / 김정석 감독 40 하나님의 손길(189회) 거룩한 마음과 자세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10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10일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118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10 김재원의 광야예찬(26회) 전국수석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김진표 이사장
0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이경은 전주초대,호호보암이 주는 교훈 (1) (역대하 12:1) 30 생명의 말씀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비전설교 새중앙 (황덕영) 50 GOODTV 오늘의 예배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665회) 50 하용준 목사의 믿음(2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God is Love(40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파소드
07:00	00 CTS뉴스W(55회) 20 생명의 말씀 대구동부-박성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고린도후서 5:1-10) 50 생명의 말씀 필그림-김형석,마지막 때 일어난 일(마태복음 13:24-30)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행복한 삶터 이리신광 (권오국) 50 행복한 삶터 소명중앙 (김대성)	30 휴먼네트워크(43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718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23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송병렬 목사
0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121회)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11회) 민수기 5-6장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행복한 삶터 삼천포 삼한 (하태경)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10일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56회)	00 하나님의 음성(312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537회) 고린도후서 22강	00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트(30회)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30 비전메시지 새빛교회 김용일 목사
0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3532회) 50대에 인생역전 비결은 오직 기도/ 임정열 권사 30 신앙예세이 박용운 목사(한중교회)-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서정오 목사, 여호수아 3강	00 GOODTV 시네마 마가복음(1회)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 (이재철)	00 [말씀] 반태훈 목사(방죽교회)(127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7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4회)	10 새롭게하소서(11478회) 나원석 선교사	00 성지가 좋다(542회) 광야 끝에서 만난 소망 (요르단, 세렛사네) 30 성경 속 전쟁사(1회) 모든 전쟁의 시작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옥천하동교회 양병만 목사	00 사론의 꽃 필 때	20 THE NEW 하늘빛항기(43회)	00 파워인터뷰(226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107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1:00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5866회) 우간다 진자&쿠미 홍성남, 김명선 선교사 50 신앙예세이 이재경 목사(광주온성교회)-약해도 괜찮다	00 비전설교 가나안 (장경덕) 30 행복한 삶터 한중사랑 (서정희)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262회) 50 Q&A 107 소요리문답(1회)	20 세상을 보는 창(320회) 50 이 땅을 사랑한 예수님의 증인들(28회)	00 소문난 성경교실(734회) 오택현 교수 다섯 번째 16강 중간기 시대를 찾아가다 : 중간시대 유대 분파들 30 C채널 매가진 굿데이(413회) 50 성전의 소리 성전교회 오원호 목사
12:00	00 CTS뉴스W(55회) 3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빠뜨리면 안 될 기도들(마태복음 6:9-13)	00 사랑의 메시지 백승 (이순화)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길(신용대)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7회) 20 [말씀] 이근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42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리스시대(조성익)	20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트(30회)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한영 목사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을 아들의 속의 도약 30 신앙예세이 박용운 목사(한중교회)-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11회) 민수기 5-6장	00 행복한 삶터 임마누엘 (전담영) 30 행복한 삶터 총일 (박상현)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87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47회)	00 올포럼(760회)	30 성지가 좋다(542회) 광야 끝에서 만난 소망 (요르단, 세렛사네)
14:00	00 [생방송]Calling GOD 50 원더풀우먼(40회) <말씀과 일상 생활의 균형> 게스트 김형정 사모	00 GOODTV 특별간증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10일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73회)	00 말씀의 힘 창일(이사우엘) 30 CBS 아카데미 숲(118회)	00 꽃보다 미소(9회)
15:00	4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5866회) 우간다 진자&쿠미 홍성남, 김명선 선교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다굼	00 [말씀] 류용평 목사(와성통증양장로교회)(315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10일	20 CBS 성서학당 (이삭)(4536회) 성서 속으로 Go God 13강	00 2026 내가 신을 향하여
16:00	30 생명의 말씀	00 사랑의 메시지 독심침례 (이기동)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참아름다운 (안병찬)	00 하용준 목사의 오한복을 강해(40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7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47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4회) 50 맛나는 교회(10회)	00 내 삶의 행보(220회) 50 복음으로 미래를 열다(3회)
17:00	00 더워십 임종구(푸른초장교회) - 예루살렘 공의회(사도행전 15:1-21) 50 찬양의 삶(108회) 광림교회 : 광야를 지나며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삶터 영광의 (조이환)	30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5회)	50 영혼의 양식 산위의마음(김영준)	00 강연소 통(74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까? 50 비전메시지 수원온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하늘숲-김기성,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요한복음 15:7) 30 신교화행전(10회) 진광교회	10 사랑의 메시지 김제하늘꿈 (강연철) 40 더 깊은 울림 헤세드 워십	10 RE바이블(39회) 50 신앙회복 프로젝트 <민아야 산다>(7회)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보훈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안국교회 지용수 목사
19:00	20 더 초존 시즌5(다림)(3회) 비애 15세	00 예배실황 순복음서울진주초대 (전태식)	30 미션로그 - 끝나지 않은 선교이야기(3회)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동수(주혁신)	00 비전메시지 세종 생수는교회 최병남 목사 30 복음강단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옥천하동교회 양병만 목사 30 생명의 말씀 백승-이순희,마음을 넓히라(고린도후서 6:11-13)	00 더 메시지 소진우 10 비전설교 해성 (정명호) 40 초정민 목사의 답답담 50 윤호균 목사의 말씀강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10일 20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국순례기>(2회)	00 TV강단 순복음원동(고경환) 50 크리스찬칼럼_중앙성경(한기채)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조셉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생명의 언어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11회) 민수기 5-6장 50 CTS뉴스	40 GOODTV NEWS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2026년 08월 10일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뉴저지온누리교회-(22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537회) 고린도후서 22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15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97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서정오 목사, 여호수아 3강	00 다니엘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10일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26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78회) 나원석 선교사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40회) 20 소문난 성경교실(731회) 오택현 교수 다섯 번째 13강 중간기 시대를 찾아가다 : 해묵의 등극 과정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찬스 구약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밀레니엄특강(22회) 김중기 목사,탕자의 누우침과 아버지의 사랑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이단 사이렌	10 전생 프랭클린의 부흥(513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10일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7회)	10 더 콜링(179회) 30 목사님 궁금해요(168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23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성경 속 인물사
00:00	50 Calling GOD(2545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10일 20 [말씀]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25회)	10 2025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23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32회)	00 새대인 강단 소강석 목사
01:00	00 CTS스페셜 워러브 찬양콘서트 40 위대한 발걸음(3회) 매리 스크랜튼 선교사 50 워킹온더바이블-성지탐방(5회)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박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249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왕국교회)(594회)	00 CBS 아카데미 숲(118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539회)	00 만나 UK(21회)
0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3496회) 거룩한 이름 때문에, 권복을 목사 1부	0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롱교회)(435회)	30 TV강단 시온(박성준)	00 만나 워십 강병삼 목사
0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서정오 목사, 여호수아 3강 50 힐링스토리(135회) 김용기 장로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229회) 30 [말씀] 양형주 목사(대전도안교회)(7회)	00 맛나는 교회(10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04:00	00 TV사백예배 새중앙교회 4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시애틀형제 (권준) 30 새벽을 깨우는 기도 50 GOODTV 새벽예배 이영훈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533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565회) 민수기 18강 50 CBS 교회소식(1063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4회) 이정익 목사 3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79회) 새대교회 소강석 목사